

문화 서늘

2025 07 VOL. 221

문화+서늘



무계원 기획전시〈머무름에 빛을 담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무계원에서 한국의 미를 담은 기획전시〈머무름에 빛을 담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옷칠장 보유자이자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장인 수곡 손대현 장인의 옷칠 작품 40여 점이 소개된다. 지속 가능한 천연 도료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예 기법인 옷칠을 활용해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영롱한 빛을 간직한 달항아리 작품 등을 선보인다.
7월 13일까지 | 무계원 | 02.379.7132



퀴드초이스 〈올더월즈〉
제3회 서울예술상 무용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리케이댄스 〈올더월즈〉가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재공연된다. 운율이 눈인 초감각의 소우주들이 단차원의 속박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변신해 세상을 멀티버스로 바꾼다는 서사를 담고 있으며, 현대무용과 스트리트댄스·한국무용 등 다양한 신체언어가 만나 다층적인 퍼포먼스를 이뤄낸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 대학로극장 퀴드 | 1577.0369



《Tangled Path》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는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 한 기획전을 선보인다. 내면의 불안과 흔들리는 정체성을 예술로 표현하고, 성숙으로 다가가는 감정의 전환기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7월 5일부터 26일까지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4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각자의 상황과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전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10명의
기획전시가 열린다. 작가의 관심사,
경험, 상상이 다채로운 작품으로
표현되며, 전시를 통해 즐거운 시각적
경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노들섬 노들갤러리 2관 | 02.423.6674

상황과
이야기
The Situation
and
The Story

노들섬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노들갤러리 장애예술기획전
2관 2025.
07. 03.
- 07. 20.

SYNC
25 NEXT
7.4 THIS IS THE NEW BLACK 9.6

싱크 박스 25
실험성·도전성·동시대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싱크 박스'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3년간 '경계 없는 무대,
한계 없는 시도'를 모토로 장르 간
융합과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시도해왔으며, 올해는 동시대에
조명할 아티스트 18팀을 소개한다.
테크노·앰비언트·현대음악·네오소울·
힙합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장르와 공연 형식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펼쳐질 예정.
7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5세어터
02.399.1000

5

02

03

6



2025 성동 별빛 시네마
7월 26일 밤 8시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야의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사방이 트인 잔디밭 위에 삼삼오오 돛자리를 펴고 앉아 별빛 아래 영화를 감상하는 행사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부팬드 4>를 상영한다. 별도의 관람료는 없으며, 편안한 관람을 위한 돛자리 무료 대여 서비스도 운영된다.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 2025
2021년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에투알로 임명된 박세은이 동료 에투알, 차세대 주역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갈라에는 박세은을 비롯해 에투알 10명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예고한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공식 레퍼토리와 각 무용수가 저명 안무가들과 협업한 주요 작품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주목할 만하며, 국내 갈라 무대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668.1352



8
뮤지컬 갈라 콘서트
우리가 사랑한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만나는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맘마미아>의 'Dancing Queen', <모차르트>의 '황금별' 등 예술성 높은 뮤지컬 대표 넘버를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와 라이브로 들어보자.
7월 5일 오후 5시 | 관악아트홀 공연장
02.828.5853



《당신의 국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국악의 날을 맞이해 국악박물관이 마련한 기획전시로, 국립국악원이 전승하고 있는 다양한 국악을 소개하고 관람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국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며, 1부 '삶을 담은 소리'에서는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한 소리를 조명하고 2부 '수양과 낭만 사이'를 통해 조선 전기 수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거문고 문화와 풍류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3부 '트민남녀, 흥에 취하다'에선 20세기 들어 변화한 전통음악의 풍경을, 4부 '여민동락, 600년을 이어온 염원'에서는 세종조 궁중음악의 철학을 전한다.
9월 7일까지 |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02.580.3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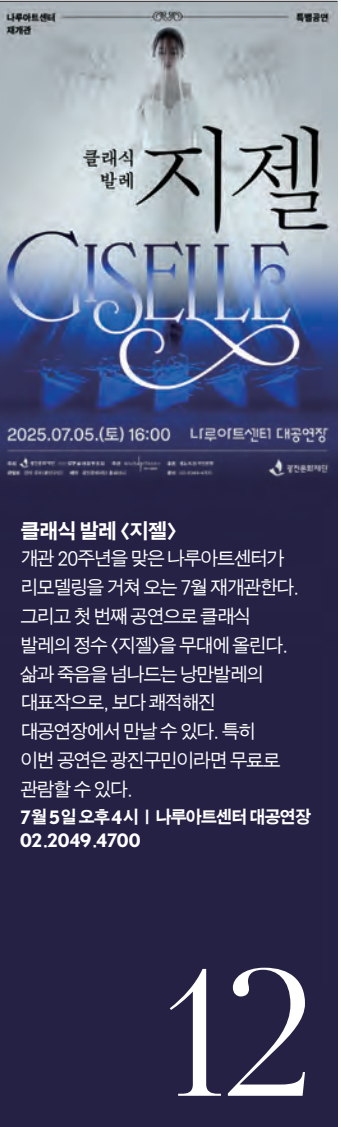
신당 프로젝트 전시《작은 반짝임》
2025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이 '공예 연결'을 주제 삼아 릴레이로 전시를 펼치는 '신당 프로젝트 전시'. 그 두 번째 순서로 박정연·김도영 작가가 협력한 <작은 반짝임>이 열린다.
7월 9일까지 | SASS 갤러리
(서울중앙시장 지하) | 02.2232.8831

9

10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래를 그린 기획전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관이 건강한 몸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몸, 나이 든 몸, 아픈 몸 등 다양한 몸을 맞이하는 공공의 장소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이자 탐구의 자리. '약한 몸'이라는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미술·건축·디자인 분야에서 몸을 환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전시 기간 서로 다른 몸이 함께하는 공연과 모임을 선보인다.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양한 몸과 어울려 살아가며, 기댈 수 있는 서로가 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20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클래식 발레 <지젤>
개관 20주년을 맞은 나루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7월 재개관한다. 그리고 첫 번째 공연으로 클래식 발레의 정수 <지젤>을 무대에 올린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낭만발레의 대표작으로, 보다 쾌적해진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진구민이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7월 5일 오후 4시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02.2049.4700

11

12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정식 서비스 개시
2023년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처음 선보인 모바일 기반 공연 영상 서비스 '디지털 스테이지'가 1년 반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무료 공연 영상과 실황 라이브 스트리밍을 감상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며, 여기에 4K 고화질의 프리미엄 VOD 콘텐츠가 추가로 서비스된다. 상가할 점은 국내외 유수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프리미엄 콘텐츠가 새롭게 공개된다는 점. 프리미엄 서비스는 연간 25,000원이며, 다양한 공연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IGITAL ST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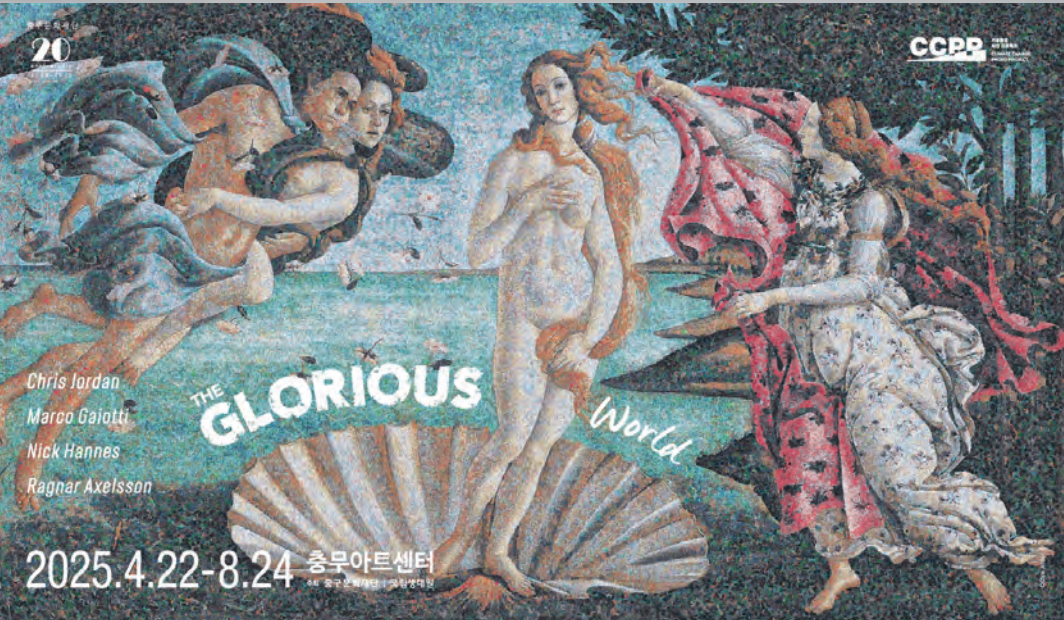


2025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로 16회를 맞는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7월을 장식한다. '파격과 혁신의 아이콘'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연출가 이희문을 예술감독으로 선임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민요의 재발견'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해석한 다채로운 민요의 향연을 펼치며, 특정 장르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첫 시도. 한민족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과거 '대중음악'으로서 민요의 위상을 동시대에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희문 예술감독의 '축제는 결국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독창적인 콘셉트의 무대가 펼쳐진다.

7월 4일부터 26일까지 | 국립극장 달오름·하늘극장 | 02.2280.4114

©국립극장



〈더 글로리어스 월드〉

충무아트센터는 올여름 기후 환경을 주제로 국립생태원과 공동 주최하는 특별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더 글로리어스 월드〉는 아이슬란드·이탈리아·벨기에·미국 출신의 작가 네 사람이 모여 110여 점의 사진과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진으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인류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8월 24일까지 |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02.2230.660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AI 시대의 검색, 웹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10

알리다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창
서울예술지원 선정작 정보 포털 SPAC

12

소개하다

정보 과잉의 시대, 문화예술 탐색하기
서울문화재단 주요 누리집

16

살피다

사람들은 요즘,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18

만나다

접속, 온라인에서 만나는 문화 데이터



COVER STORY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연극·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열린 라이브씨어터 〈긴긴밤〉은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은 루리 작가의 스테디셀러 동화가 입과손스튜디오의 판소리극으로 빛을 발한 작품이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7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24

예술가의 진심

무용가 김충환이 꿈꾸는 무대 안팎의 혁신

30

예술인 아카이브

김승현

32

예술인 아카이브

박소라

34

페이퍼로그

예술지원1팀 김유리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니까

36

인사이드

잊히지 않은 무대, 되살아나는 감정

쿼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40

인사이드

삶을 쓰고 꿈을 그리는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

42

인사이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살펴보기

48

트렌드

책, 솜뿔으로 뒤덮인

세계의 마지막 보루

50

해외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태극 영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다

COLUMN

54

명곡의 뒤안길

사뭇 다른 '세탁기 노래'

56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줌는다

"밥은?"이라는 말—밥빼기와 밥심

58

멈추면 보이는 것들

예술로 빛나는 도시의 얼굴

59

국악 칼럼이래기엔 쑥스럽지만

이게 다, 노트북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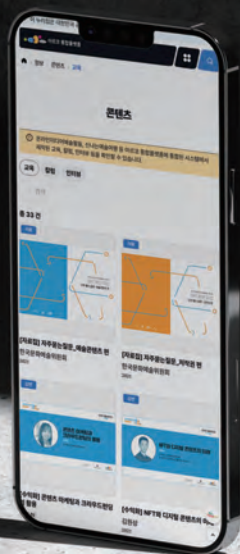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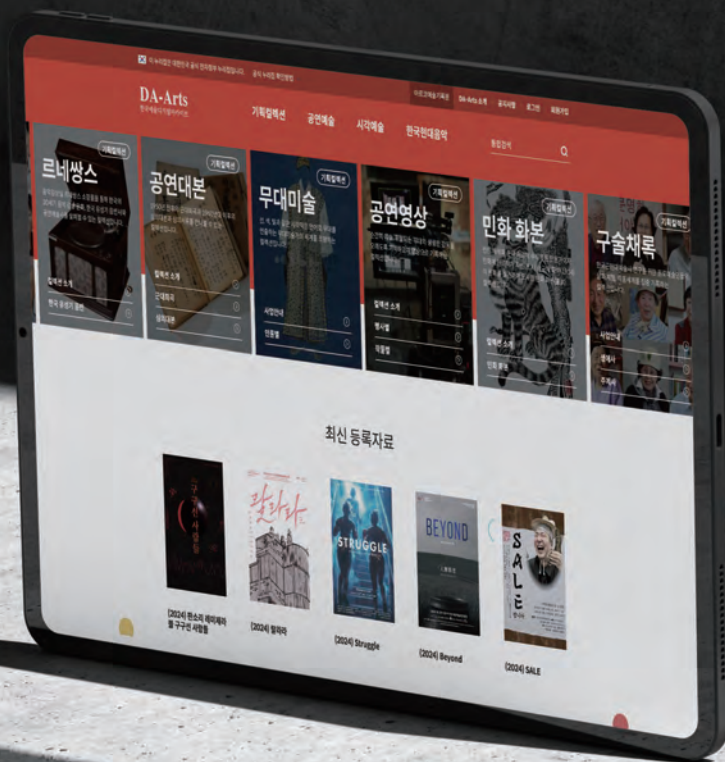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AI 시대의 검색, 웹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찾아가기 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검색부터 하는 시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감상 포인트와 후기, 주변의 맛집까지 미리 확인하는 우리에게
이제 문화예술은 예술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포털
SPAC와 만나기에 앞서, 웹 환경에 담긴 문화예술 현장을 두루 살펴봤다.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창

서울예술지원 선정작 정보 포털 SPAC

7월 중순 새롭게 만나는 포털 SPAC는 예술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넘어 서울 예술 생태계의 순환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자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약 170억 원
규모로 500편의 예술 작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재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작품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예술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지원 선정작 정보 포털(스파크Seoul
Portal of Artworks Certified, SPAC)’을 7월 15일 새롭게
선보인다. 이로써 그간 단절된 시민-예술인 간
정보 접점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SPAC는 예술인에게는 공공 기반의 신뢰성
있는 온라인 홍보 채널로 작품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에게는 우수한 예술 작품
정보를 접하고 누리는 문화 정보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서울의 예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나아가 글로벌
공연·전시 유통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포털 사이트(spac.sfac.or.kr)에 접속하면
보이는 SPAC의 로고는 화려한 월계수처럼
빛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우수한 예술 작품이
‘스파크(불꽃)’처럼 타오르며 빛을 낸다는
의미이며, 융합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불타오르는 형상을 시각화했다. 로고 상단의
별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왼쪽 월계수는 ‘예술인’, 오른쪽 월계수는

‘문화예술 작품’을 상징한다. SPAC를 받음하면
‘스팩’ 혹은 ‘스파크’으로 읽히지만, 예술적
영감과 창작의 불꽃spark이라는 브랜딩 의미를
중의적으로 강조해 ‘스파크’로 표현했다.

이처럼 SPAC는 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연결의 장을 제공하며, 서울 예술
생태계의 순환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자 한다.
이제 막 시작된 SPAC의 여정이 예술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SPAC를 통해 연인과 친구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술 작품을 즐겨보자.

SPAC, 기존 포털과 무엇이 다를까

#큐레이션_맞춤형 작품 정보 서비스

예술인이 작품 등록 시 테마별

키워드(해시태그)를 설정, 이를 기반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큐레이션 서비스처럼
시민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손쉽게
골라볼 수 있다.

#작품유통_순수예술 작품 유통 플랫폼

순수예술을 위한 정보 플랫폼의 부재를
해소하는 동시에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티켓 판매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유통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등록_예술인이 정보를 직접 등록

일차적으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에
등록된 데이터를 SPAC와 연계하고, 예술인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술공간_확장형 문화예술공간 정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 정보뿐만
아니라 소규모 독립예술 공간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으며, 포털에 등록된 공연과 공간
정보를 연계해 보여준다. 지도 형태의 이용
화면을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정보 과잉의 시대, 문화예술 탐색하기 서울문화재단 주요 누리집

정보는 빠르게 바뀌고 기술은 진화하며, 사람들의 이용 행태 또한 계속해서 변화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찾아보고 싶은’ 서울문화재단 주요 누리집 13곳을 소개한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정보가 넘쳐흐르는 시대의 문화예술은 발견보다 탐색이 더 중요하다. 예술을 향한 접근은 전보다 더 쉬워졌지만 정작 내가 보고 싶은 예술을 찾는 일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해왔다. 예술인을 위한 공모 지원,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기록과 축적의 아카이브까지. 일차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온라인이 문화예술 향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하나하나에 ‘예술로 가는 길’을 만들어왔다. 남녀노소 다양한 이들이 걷는 이 길에는, 장애 유무나 정보기술에 대한 익숙함과는 관계없이 누구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 또한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디자인보다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화면 구성, 정보는 꼭 필요한 것만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수다.

온라인 플랫폼은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손보고 가꿔야 살아 있는 통로가 된다. 정보는 빠르게 바뀌고 기술은 진화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용 방식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능은 더 단순하게, 화면은 더 직관적으로, 정보는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 서울문화재단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신청과 정보 검색의 편의성 강화, 사용자 질의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등을 숙제로 삼아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하게 예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
scas.kr
since 2021. 2
예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신청부터 심의·교부·정산까지 공모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술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매년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 운영 플랫폼 중 가장 활발하게 기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예술지원 선정작 정보 포털

SPAC

spac.sfac.or.kr

schedule 2025. 7

연간 500편 규모의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작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오는 7월 15일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과 예술인을 이어주는 여러 작품 정보가 게시되며, 문화예술 공간을 기반으로 한 검색 또한 가능하다.

서울문화재단 통합대관시스템 SIRS

sirs.sfac.or.kr

since 2024. 12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대관하고 싶다면 SIRS 안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공간에 한해 운영 중이며, 이용 대상 공간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예술상

seoulartsawards.com

since 2023. 2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작과 서울에서 발표된 예술 작품 중 한 해 동안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순수예술 분야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울예술상의 역대 수상작과 시상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sfac.or.kr/sasc

since 2024. 11

예술인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만 아니라 예술인 일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예술인은 이곳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프로필을 등록해 일거리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예술인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거리 공고를 올릴 수 있다. 구인처-구직자 간 직접 소통 창구를 지원해 신속한 일거리 매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민예술학교

sfac.or.kr/asa

since 2024. 4

강의·토크콘서트·예술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 오픈 초기에는 프로그램 신청·마감·대기·취소·자동 승인 등 신청 처리에 관한 다양한 변수가 있어 운영이 쉽지 않았으나 실제로 누리집 가동을 시작해 경우의 수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며 현재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됐다.

서울청년문화패스

youthcultureseoul.kr

since 2023. 4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23세 청년에게 공연(뮤지컬·연극, 클래식 음악·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자라면 해당 누리집에서 다양한 대상 작품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어텀페스타

schedule 2025. 8

2025년 서울문화재단이 신설한 공연예술 통합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의 플랫폼으로, 8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100여 편의 공연·축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허브로 시민에게 다가간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sfac.or.kr/givetogogether

since 2014. 11

서울문화재단이 그간 추진한 제휴사업과 캠페인을 소개한다. 기업 파트너십과 제휴 관련 문의 또한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부·제휴 플랫폼이다.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 re:stage seoul restageseoul.or.kr](http://re:stage seoul restageseoul.or.kr)

since 2023. 5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연물품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플랫폼으로, 대도구·의상·소품 같은 공연물품을 빌리거나 맡길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

sfac.or.kr/archive

서울문화재단에서 생성한 영상·사진·간행물·웹진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시각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 재단의 역사와 그간의 걸어온 길이 궁금하다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카이브 모아, 답아 moda.or.kr](http://moda.or.kr)

sinc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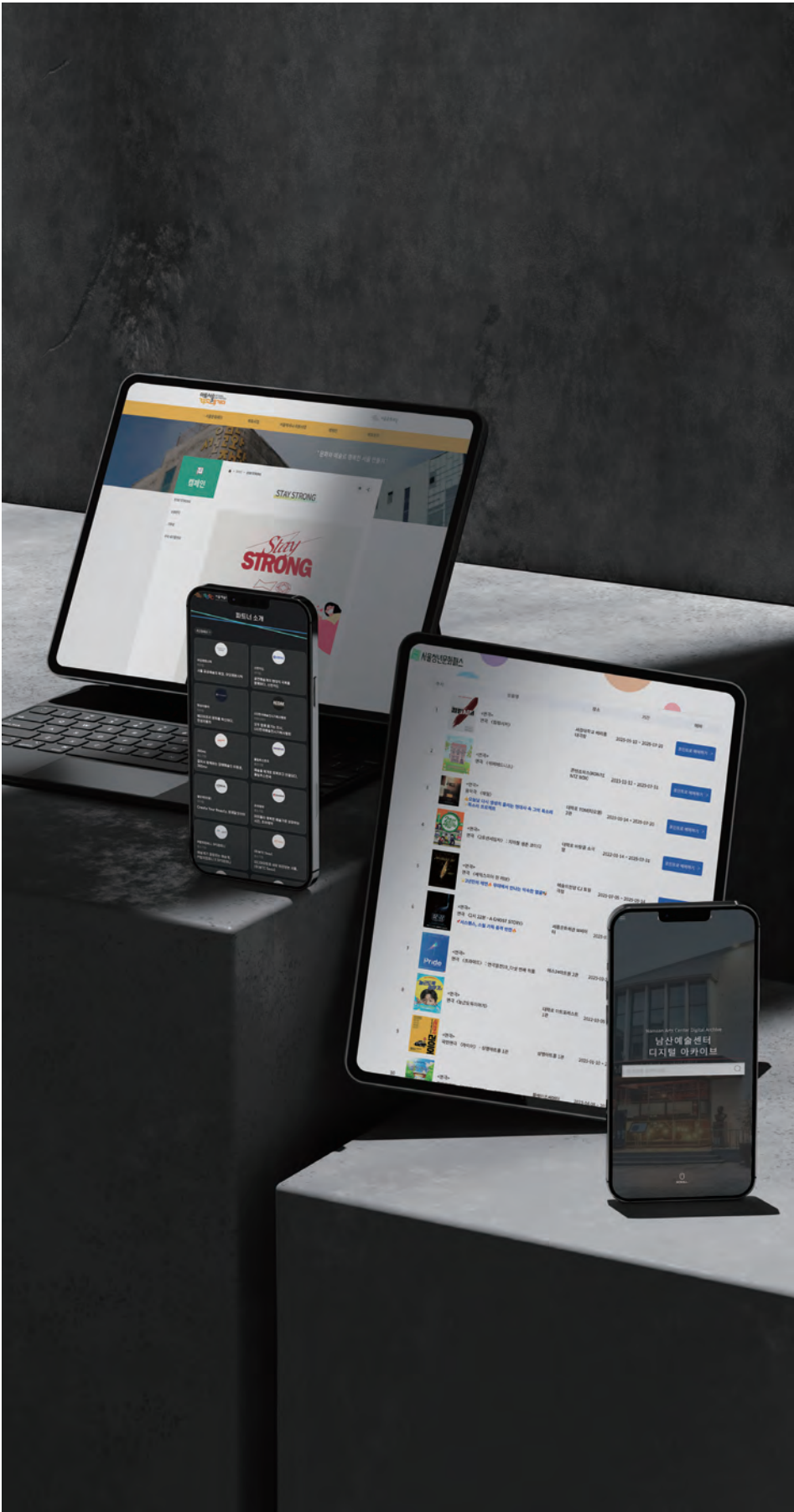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아카이빙을 위해 개설된 플랫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단체·개인별 프로그램 모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nsac.or.kr

since 2020. 12

2020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이 종료된 남산예술센터 12년간의 기록물을 차곡차곡 저장해둔 아카이브 플랫폼.



사람들은 요즘,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온오프라인을 오가는 잡지의 변화를 거쳐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매체까지. 정보를 얻는 방법은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진화한다.

내가 공연계에 발을 디딘 것은 2001년이다. 뮤지컬 전문지 『더 뮤지컬 The Musical』이 비정기로 발행되고 있을 때 경력직 기자로 채용됐다. 2001년에 국내에 뮤지컬만 다루는 전문지가 생겨난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미 미디어의 영향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잡지를 비롯 신문·방송 등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전성기는 2000년대 이전이다. 전화로 티켓 예매를 받고 수기로 티켓을 발권하던 시절, 유명 일간지에 기사가 나면 전화 예매 아르바이트의 수를 늘려야 할 정도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은 컸다.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는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간다. 포털 사이트는 그 자체가 매체가 아니지만, 대중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매체 이상의 영향을 띠게 된다. 레거시 미디어의 기사를 보지만, 종이 신문이나 TV 방송으로 직접 매체의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0년대 잡지 역시 서서히 사양길에 접어든다. 그러나 『더 뮤지컬』을 비롯한 『씬플레이빌』(현 『시어터플러스』), 『객석』 등 전문지와 각 공연장이 발간하는 『예술의전당과 함께 뷰티풀 라이프 Beautiful Life!』(예술의전당) 『미르』(국립극장), 『아트뷰』(성남아트센터), 『아트홀릭』(충무아트홀)이 종이 잡지로 발행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창간됐다. 서서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매체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었지만, 아날로그 속성이 강한 공연 관객의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 잡지 발간이 유지될 수 있었다. 공연 관객의 아날로그 정서가 강하고 실물 잡지의 손에 잡히는 물성도 취향 공동체인 소수 집단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이유로, 책으로 발행되던 공연장 잡지가 온라인 전환을 시도했다가 다시 책으로 재발간되는 일이 최근까지도 일어났다.

전문지의 경우 취향을 공유하는 이들의 애작으로 오프라인 발행이 힘을 얻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온라인으로 향한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연장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온라인으로 전환한 후 폐간하거나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종이 잡지의 물성이 힘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잡지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발행을 전환했지만, 시스템이나 콘텐츠 성격을 여전히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게 운영하면서 기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오프라인 잡지 자체의 매력과 그것이 갖는 경쟁력은 여전하다. 하지만 높은 제작비, 복잡한 제작 시스템, 불편한 유통 구조를 극복하기 힘들다. 결정적으로 콘텐츠를 모바일로 소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제작한다고 해도 온라인 병행 게재를 피할 수 없다. 온라인 잡지는 물성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다른 정보와의 연결성이 좋고, 영상화 시대에 영상물이나 기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쉽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가 많이 들지만 일단 구축하고나면 콘텐츠 생산 비용이 적게 들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기사를 생산할 수 있다.

인터파크(현 NOL유니버스) ‘플레이DB’와 ‘뉴스컬처’ 같은 온라인 공연 매체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뉴스컬처’는 보도자료를 재편집한 정보성 기사를 하루에 100여 편씩 소개하고, 전문 칼럼으로 구색을 갖추 초회 수 광고로 매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터파크DB’ 경우 예매처라는 장점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와 별도의 공연 기사를 기획해 공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루에도 공연 관심도가 높은 관객이 수십만 명씩 방문하는 사이트인 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았는데, 매거진 사업을 그만둔 것은 아쉽다.

최근의 경향은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비권위적이고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온라인 매체가 부각된다는 점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플랫폼으로 삼은 ‘혜화로운공연생활’, 공연 인플루언서 황조교(@hwangjogyo_musical)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레거시 미디어가 주는 진지함에서 탈피해 편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전달한다. 제작 비용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만드는 매체도 등장하고 있다. ‘CY:stage’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학생 기자들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매거진으로, 구독 서비스로 운영된다. 이 매체의 강점은 관객 눈높이에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매거진처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고 개성이 묻어나는 개인 매체가 인기를 끈다. 인스타그램 매거진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짧은 호흡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고 있다.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종이 잡지, 특히 전문지는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만의 매력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온라인 매거진이나 포털 사이트의 발전은 시대적인 요구다. 온라인상에서 일하고, 놀고, 정보를 얻는 시대에 매체의 온라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매거진처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매체 역시 계속해서 등장하고 진화할 것이다.

접속, 온라인에서 만나는 문화데이터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탐색하며 경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데이터는 생동하는 예술 현장을 비추는 거울이자,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돕는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

오늘의 문화 지형도를 한눈에, 통계 지표

통계 지표는 문화예술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예술 경험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 문화예술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유용한 지역별 문화 향유 수준, 참여율, 소비 행태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부터, 예술가나 시민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콘텐츠 서비스까지. 다양한 기관과 부처에서 문화예술 통계를 시각화해 선보이고 있다. 먼저 예술경영지원센터(gokams.or.kr)에서는 공연과 전시, 예술 시장 등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자료를 제공한다. 분기마다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과 연간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보고서를 발행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목록 역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KOPIS 공연예술통합전망(kopis.or.kr)은 좀 더 세분화된 공연예술 데이터를 담고 있다. 전국의 공연 및 예매 통계는 물론, 매년 산업 전반을 다루는 공연예술조사 데이터와 주제별 현황 분석을 선보인다.

서울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도서나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알아보고 싶다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이용해보자.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연장과 전시·축제 등 문화 행사 정보는 물론,

문화예술 및 체육·여가·언론출판·인쇄 관련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넘어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통계는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제공한다. 문화예술·여가·체육 분야의 전국 단위 공공 통계를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초보를 위해 대상이나 이슈별로 쉽게 보는 통계도 제공한다. 통계 지표 검색이나 분석이 익숙하지 않다면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챗봇 서비스가 요긴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는 ACKIS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은 정책 관점에서 예술 산업 및 통계·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정보를 제공한다. 예술 관련 정책이나 논문·제안서 작성의 근거 자료를 찾는다면 참고해둘 것.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문예연감(arko.or.kr/yearbook/)은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북한문화 등 한 해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총망라해 다룬다. 1976년부터의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출처만 표시하면 비상업적인 용도로 변형하는 등 2차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다. 특히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별도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 관람률, 교육 참여율 등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누리(index.go.kr), 문화예술 분야
공모 및 지원 사업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포털(culture.go.kr)도 참고가 된다.

문화예술의 어제를 돌아보다, 아카이브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의 찬란한 유산을
온라인으로 담아내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20여 년이 지난
현재, 분야별로 문화예술 온라인 아카이브가
풍부하게 쌓였다. 아르코예술기록원은
공연·시각·문학·민속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 자료 전문 아카이브로,
한국 근현대 예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기록물을 수집·보존·서비스한다.
아르코예술기록원이 디지털화한
기록물은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s(daart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ih.go.kr)는
무형문화유산의 영상이나 사진·음성
자료를 종목별로 분류해 제공해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유용하다.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archive.gugak.go.kr)나
국립국단 아카이브(archive.ntck.or.kr)에서도
전통 공연예술 기록물을 만날 수 있다.
국립극장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별별스테이지(archive.ntok.go.kr)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연예술박물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연극·무용·국악 분야에 걸쳐
45만 점의 자료를 소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mmca.go.kr) 누리집에서는
‘디지털미술관’을 비롯해 미술연구센터에서
소개하는 소장품 이야기, 큐레이터 전시 해설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소장품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1만여 점이 넘는 예술 작품의 고화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seoul.go.kr/
semaaa)는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이다.
미술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이용자를 위해
마련된 연구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컬렉션
시각화 등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아카이브 필사 코너는

소장 자료 중 온라인에서 읽어내기 어려운
텍스트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콘텐츠로,
감상을 넘어 아카이브에 직접 참여를 유도한
점이 흥미롭다.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을 돌아보고 싶다면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sfac.or.kr/archive)를 추천한다.
서울시민예술학교·노들섬 등에서 펼쳐진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기록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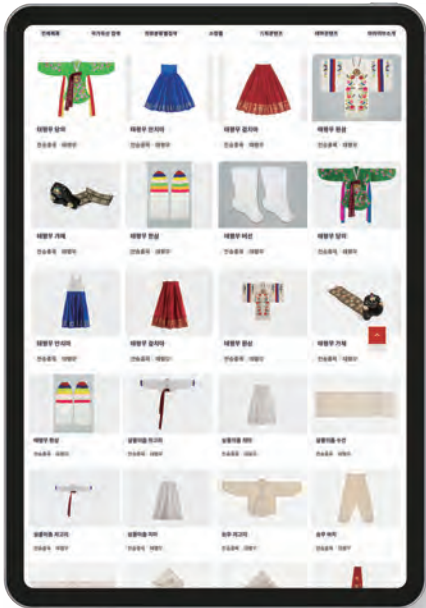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운영하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cda.or.kr)는
공연부터 시각·문학·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보존·제공한다. 이밖에 우리나라
주요 국보와 보물을 고화질 이미지로
감상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emuseum.go.kr),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이 만료된 예술 작품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공공누리(kogl.or.kr),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공데이터광장(culture.go.kr/data)도
유용하다.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전달을 위한, 예술 사전

외래어나 한자어, 전문 용어가 뒤섞여
소통의 오류가 생긴다면 예술 언어 사전을
적극 활용해보자. 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술용어사전(culture.go.kr/knowledge/
encyclopediaDictionary.do)은 말 그대로 문화
관련 예술 용어를 소개하는 페이지다.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언어를 가나다순으로
수록한다. 특히 예술지식백과(culture.go.kr/
knowledge/encyclopediaList.do)와 연결돼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국립국악원에서 제공하는
국악사전(gugak.go.kr/ency)은 국악 용어는



물론 악기 사진, 음원, 3D 자료도 함께 소개해
문화예술 교육이나 자료 제작에 유용하다.
AI 챗봇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국악 이야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gokams.or.kr/visual-art/art-
terms)은 미술 용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미술 용어 외에도 인명·단체
및 기관명을 검색할 수 있어 전시 안내서나 번역
작업에 특히 유용하다.

월간미술(monthlyart.com/encyclopedia)에서
서비스하는 세계미술용어사전은 미술 감상과
연구에 필요한 핵심 미술 용어 2천여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난해한 미술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풀어 쓰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요 미술 언어를 습득할 수
있어 아무 초성이나 검색해 읽어도 흥미롭다.

문화예술진흥법(law.go.kr/법령/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법적
정의와 관련된 용어가 포함된 기본
법령으로, 공공기관 보고서나 정책 제안서



작성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or.kr)에서는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 등과 관련한 정책 용어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서류 작성 시
참고하면 좋다.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기금·일자리

예술인과 단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술지원 공모, 인력 양성 등 사항을 통합
제공하며 공모 일정 확인과 신청이 손쉬운
아르코 통합플랫폼(thearts.arko.or.kr)이
있다. 아르코 통합플랫폼은 각종 지원 사업
정보 외에도 예술가가 직접 선정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공간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내 일(hrd.arko.or.kr)에 접속하면 문화예술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술인력육성 사업과 연계한 채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잡마켓, 온라인 실무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무대기술부터
기획·행정 등 예술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일자리를
직무별로 필터링해 관련 산업에 진입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한편 아트모아(artmore.kr)는 예술인
포트폴리오 등록과 구인·구직 기능이 있는
예술인 특화 플랫폼으로, 다양한 직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아트허브(arthub.co.kr)는 전시
소식·레이던시 입주·공모 등 시각예술 작가
중심의 공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관련
활동 기회를 넓혀준다.

지속 가능한 창작지원금 마련은 물론 취업 후
생겨나는 각종 분쟁이나 어려움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kr)이 힘이
돼줄 것이다.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권익
보호 제도, 창작지원 등 예술인의 생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예술강사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의 문을
두드려보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예술가의 예술교육 현장 진입을 돕는다.

대학로극장 퀴드 x 즉각반응 공동제작



작·연출
하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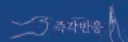
출연
마광현
홍철희
손성호
장재호
김영선
심민섭
황규환
이창현
이경우
엄태호
윤희지

티켓
전석 5만 원

예매
대학로극장 퀴드
NOL 티켓

문의
1577-0369

2025. 9.10.수 - 9.28.일 평일 19:30 주말 15:00



AS SOON AS
POSSIBLE

예술가의 진심

무용가 김충헌이 꿈꾸는 무대 안팎의 혁신

예술인 아카이브

김승현

박소라

페이퍼로그

예술지원1팀 김유리

인사이드

퀴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살펴보기

트렌드

책, 솟품으로 뒤덮인 세계의 마지막 보루

해외는 지금

태국 영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무용가 김충한이

김충한은 ‘한국적 소재를 모티프로 하는 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다. 창작 신^{scene}에서 굵직한 이력을 쌓아온 그가 보존과 전승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으로 거취를 옮긴 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다. 국립국악원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는 관객의 마음에 닿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신념으로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행보를 조금씩 바꿔 놓고 있다.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고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가 꿈꾸는 무대 안팎의 혁신을 들여다봤다.

꿈꾸는

배우는 몸, 도전하는 마음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지 어느새 1년 반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단체에서 예술감독으로 재직했지만, 그 어떤 단체보다도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에 온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라니요. 소화해야 할 공연이 엄청 많습니다. 초 단위로 연습해야 해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경우 녹음된 반주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실황으로 연주하고 거기에 맞춰 공연하기 때문에 무용단 내에서의 연습뿐만 아니라 정악단이나 민속악단·창작악단 등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생각해도 숨이 찰 정도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네요.(웃음)

무대 안팎의 혁신

창작보다 보존과 전승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감독님께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있나요?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정재^{정재}(궁중무용)를 위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재’ 하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제대로 감상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니아층이 아니면 진입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정체성이나 정신을 훼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키면서 창의적인 모습, 현대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2024년 초연하고 올해재공연을 앞둔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민속춤 열 가지를 다시 해석한 작품인데, 부임 후 첫 정기 공연 레퍼토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온 시도인가요? 임명이 확정된 그날부터 이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적인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보존과 전승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국악원에서 갑작스럽게 현대화를 시도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 생각했죠. 보통 민속춤은 독무입니다. 혼자 춘단 말이죠. 저는 한국 민속춤의 본질은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춤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고 그렇게 완성한 것이 <상선약수>입니다.

보통 민속춤 하면 개인의 기량을 극대화해 혼자서 추는 독무 형식이 익숙한데, 군무로 감상하는 건 색다른 경험입니다. 서로 다른 유파를

공부하는 것도 단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을 듯합니다. 원래 민속춤이라는 건 한성준이라는 거장으로부터 파생한 것들이죠. 거기서 강선영류·한영숙류·이매방류 같은 유파들도 뿔어나가기 시작하고요. <상선약수>는 그런 유파들을 최대한 모으고 해체한 후 재구성해보는 시도였습니다. 특정한 유파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특정 유파의 춤에서 가장 좋은 부분, 혹은 특색이 있거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재구성한 거예요. 당연히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음악도 다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단원들에게는 큰 시도였어요. 이를테면 본인들에게 익숙한 동작과 순서가 있을 텐데 여러 유파를 왔다 갔다 하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판받더라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린 <고려가무>는 『고려사 약지』를 토대로 정재를 해석한 공연입니다. 기록만으로 온전히 춤을

복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록으로부터 시작되는 상상이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김혜자·박성호·백미진 세 안무가에게 어떤 것을 요청했고, 이를 조율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무가 세 분은 정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작업에 오랫동안 몰두해온 분들이예요. 그래서 창작할 때 고민되는 지점이 많았죠. 저는 관객이 공연을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관객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작품 전반에서

서사가 느껴지게요. 작품의 템포도 중요하게 고려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리게만 진행되면 관객이 힘들 수 있으니 동적인 부분을 넣고, 이와 관련해서는 작곡가들과 조율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 활동을 하며 즐거웠던 순간이나 힘들었던 순간이

↓ 2024년 초연해 올해 재공연하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상선약수> ©국립국악원





있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국립국악원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게 공부가 안된 부분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일 년 동안 다른 지역 순회공연을 하면서 중요제례악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야 그 깊이를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창작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던’이라는 건 ‘클래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창작이라고 해서 클래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립국악원은 ‘클래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 탄생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춤을 따라 걷는 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춤이라는 세계에는 어떻게 빠져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경북 문경 출신인데, 형의 유학길을 따라 서울로 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고요. 저희 때만 해도 서울로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죠. 저는 공부를 소홀히 했지만, 음악이나 춤에 재능이 있었어요. 예능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충한’ 하면 화려한 이력의 기반이 된 명무 정재만과 훈령무가 떠오릅니다. 정재만 선생님과 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1980년대에 대한민국무용제가 열렸어요. 지금의 서울무용제인데, 거기서 정재만 선생님의 〈해〉라는 작품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그 작품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재만 선생님께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재만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신 게 훈령무예요. 지금은 제가 선생님의 훈령무를 이어서 추고 있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소나무는 색깔이 변하지 않잖아요. 일 년 내내 계절이 변해도 자신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죠. 자신의 예술관, 신념을 지키고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정재만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만 말해보자면, 저는 남자니까 남성 춤을 췄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실제 교육 대상은 여성이 많으면서 치마를 입어봐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연습을 했습니다. 치마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을 어떻게 쉼하는지 모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성 무용수들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땐 누가 볼까 걱정도 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성 무용수보다 더 예쁘게 치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웃음)

세계를 움직이는 춤

국립무용단·국립정동극장·경기도무용단에서의 굵직한 활동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활동 이력이 많아서 모두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정동극장에서 진행한 시리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설공연 ‘미소’ 시리즈가 있죠. 그전까지는 ‘춘향’ 이야기만 다뤘어요. 그런데 제가 해마다 내용이나 의상·무대 등을 재단장해서 새롭게 상설공연을 꾸렸습니다. 난타가 상당히 인기가 많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유료 관객과 외국인 관객의 수가 상당했죠. 경기도무용단에서의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팬데믹 시기와 겹치면서 활동이 원활하지는 않았는데요. 제목을 〈본〉, 〈를〉 등 한 글자로 정해서 레퍼토리를 차곡차곡 쌓았죠. 대체로 무용극이었는데,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 좋았죠. 미학도 미학이지만 울고 웃고 감동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작을 떠올려보면 ‘무용극’, ‘댄스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우선은, 제가 국립무용단 출신입니다. 국립무용단에 재직할 때 송범 선생님께서 예술감독으로 계셨어요. 옛날엔 국립무용단의 작품이 거의 다 무용극이었습니다. 요샌 무용극을 잘 하지

않죠. 저는 무용극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뮤지컬을 좋아해요. 뮤지컬 보러 가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노래도 노래지만,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무용도 뮤지컬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대중과 교감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무용 쪽은 어렵게 작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관객이 와서 이해하지 못한 작품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움직임이 있을 순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관객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한 춤, 관객을 위한 춤이 돼야 한다고 봐요.

대중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 또 대중과의 공감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신념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젊을 때는 저도 못 알아듣는 작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객의 반응이 없어요. 예술가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만들었는데,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박수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무용가로서 한국춤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외국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호흡’이에요. 승무나 살풀이춤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걸 내공이라고 하는데, 이 내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즘 교육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안타까워요. 우리는 스승과 밀접하게 교육을 받아온 세대니까 그 내공을 조금 전수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이런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춤 하는 사람이 한국춤을 추는 것 같은 호흡이 나타난다고 해야 할까요.

감독님께서 한국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세계를 꿈꿔요. 예전에는 외국에 한번 나가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지금은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전통을 세련되게 만들어 세계로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김승현

시각예술/회화

@kim_seung_hyun_98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2024 서울문화재단+우리금융미래재단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선정

↓ <우리의 세계 Part 1>,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 일상과 상상의 경계에 있는 풍경을 그림으로 노래하는 작가 김승현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롭게 유명하는 바다 생물, 우리의 일상 속 풍경이 부유하는 세계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저는 그림을 그리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여러 기관에서 문화 체험형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회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일출과 석양처럼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며 다음 작업의 재료로 삼을 때,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저만의 생각과 시선으로 다시 그려낼 때, 제가 작가임을 다시 느낍니다. ”

“ 대표 작품으로는 <우리의 세계 Part 1>, <우리의 세계 Part 2>가 있습니다. 제 작품의 주요 소재는 '바다'입니다. 낯설지만 아름다운 바다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풍경입니다. ”

↑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2024, 캔버스에 아크릴,
72.7×181.8cm

→ <산호숲의 오후>,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1×116.8cm

알지 못하기에 두렵지만, 동시에 동경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아가 해양 속 육지 동물이나 비현실적인 장치를 통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실과 이상 세계가 한 화면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최근에 작업한 <우리의 세계 Part 1>, <우리의 세계 Part 2>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상향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표현했습니다. 파트1은 문 안, 파트2는 문밖의 세계를 의미하며, 두 세계는 사실 문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의 세계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

“ 유년기에 가족과 자주 방문한 수족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쏨배감펍·해파리·산호초·말미잘 등 형형색색 해양생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상상력을 덧붙여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7월 6일까지 진행되는 ”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이라는 전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뤄진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초현실주의라는 공통 언어 속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고하고 작업하며,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남달랐던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

“ 지금까지는 주로 아크릴을 이용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오일 페인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색다른 질감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조형예술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박소라

시각예술/조각·미디어·설치
@soraparque
sorapark.xyz
2025 금천예술공장16기 입주작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박소라입니다. 주로 조각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해 있습니다.

2019년 런던 유학시절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열었던 전시가 기억납니다. 학교 근처 그리니치의 작은 갤러리에서 기획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첫 전시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21년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단체전 《끼워진 촉각》을 시작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관심을 가진 매체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카메라로 멋진 구도, 빛, 순간을 담기 위해 한 컷 한 컷을 신중히 찍고, 현상된 사진을 받아보기를 기다리던 경험이



↓ 《메타뷰티노베이션》, 2024, 대구문화예술회관 설치 전경

아직도 설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매체로 관심을 확장해나갔고, 점차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머릿속과 드로잉, 3D 프로그램을 오가며 구상하던 작업이 실제 공간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에서야 스스로 예술가임을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순간이 작가로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대표작 중 하나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전시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에서 선보인 작품 《시티펜스》²⁰²⁴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동일한 구조 단위가 겹치고 연결되며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조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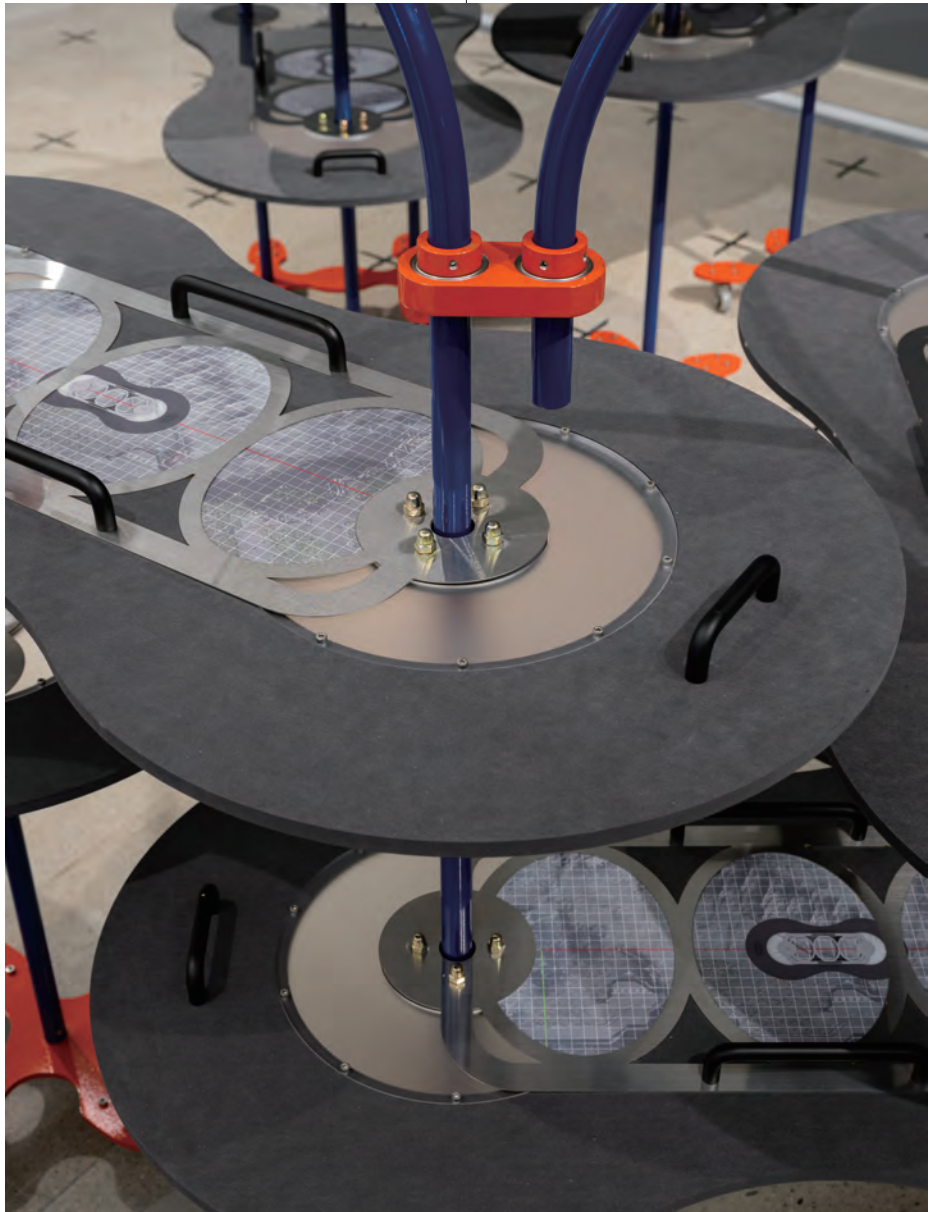
작품으로, 관객은 구조물처럼 보이는 조각을 직접 밀고 당기며 작품과 신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조각은 전시실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처럼 이 조각은 공간에서 관객의 동선을 구획하거나 차단하는 ‘펜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선과 접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막아서는 장치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표면에 인쇄된 그리드 좌표와 같은 시각적 요소들은 디지털 시대, 특히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움직임, 연결, 단절의 구조를 환기합니다. 저는 이처럼 관객과 작품, 공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작업해왔습니다. 최근 작업에 있어서는 SF적 상상을 시작으로 조각을 만들고 있으며, 상상한 서사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영상 매체나 VR·AR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작의 출발점으로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고리즘 기반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기술이 인간의 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 관찰해왔습니다. 또한, 개인이 어떻게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자신을 이미지로 표출하고, 그 이미지가 다시 자아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로 책을 읽는 편이며, 디지털 매체 환경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 《시티펜스》, 2024,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이미지출

최근 본 작업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봉준호 감독의 SF 영화 《미키17》입니다. 단순한 미래 상상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적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소모되는 인간, 식민주의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유머러스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영상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가오는 8월, 보안여관에서 열리는 《나는 정복당했다-종의사파리》전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술지원1팀 김유리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니까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2014년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했으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대학 시절에는 휴학하고 환경·인권·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는 비정부기구 전문 신문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의 비정부기구에서 지역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2011년과 2012년에는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영화 파트 인턴으로 근무하며 한국영화제와 한국 영화의 밤 행사 운영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2012년에는 어시스턴트 자격으로 칸 영화제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한국문화원에서의 경험 덕분에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2013년에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행정스태프로 근무하며 홍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순간들을 이어가고 싶어서 국제 교류와 축제 기획 업무를 꿈꾸며 서울문화재단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예술 현장은 나의 힘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삶의 방향과 일치했기에, 입사를 마음먹었습니다. 업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폭넓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과 잘 맞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순환 보직으로 근무하니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업무에 관계할 수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달력
저는 현재 예술창작활동지원 업무 중 공연예술 분야 총괄 겸 무용 장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작지원 사업은 재단의 일반적 사업보다 시작 시기가 빠른 편입니다. 전년도부터 상시로 전문가·현장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표님과 함께 3월부터 그러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전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9월 말 공고를 시작해 10월부터 접수를 진행합니다. 더 많은 예술인과 단체가 더욱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안내 영상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월까지 검증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당해 1월에는 창작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년도에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연초에 지원결과를 발표해 예술가들이 빠른 지원 결정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당해 2월부터 12월까지 먼저 선정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운영을 위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일 년여에 걸쳐 창작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종종 지원사업을 일 년 농사를 짓는 예술가들을 위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작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예술지원은 그만큼 창작을 지속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입사 초에는 축제기획팀에서 거리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프랑스의 거리예술학교에서 진행되는 해외 교류 워크숍을 운영했어요. 예술가는 아니지만, 행정가 자격으로 수업을 참관하고 사업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국내·해외 공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했고, 이후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등 재단에서도 나름 규모가 큰 축제를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축제 업무를 하니,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축제를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서울문화재단 12년차를 지나며
축제기획팀에서의 5년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문화팀·문화향유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생활을 바꾸는 예술²⁰²¹,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²⁰²², 서울청년문화패스²⁰²³ 등 3년 연속으로 신규 사업을 런칭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다보니 주변에서는 저더러 ‘신장개업 전문’이라고 하더군요. (웃음) 이때까지 재단 생활의 절반은 축제기획팀에서, 또 절반은 문화향유팀에서 보냈는데요. 현재는 예술지원1팀에서 공연예술 분야 창작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2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재단 생활 12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연예술’, ‘축제’, ‘국제 교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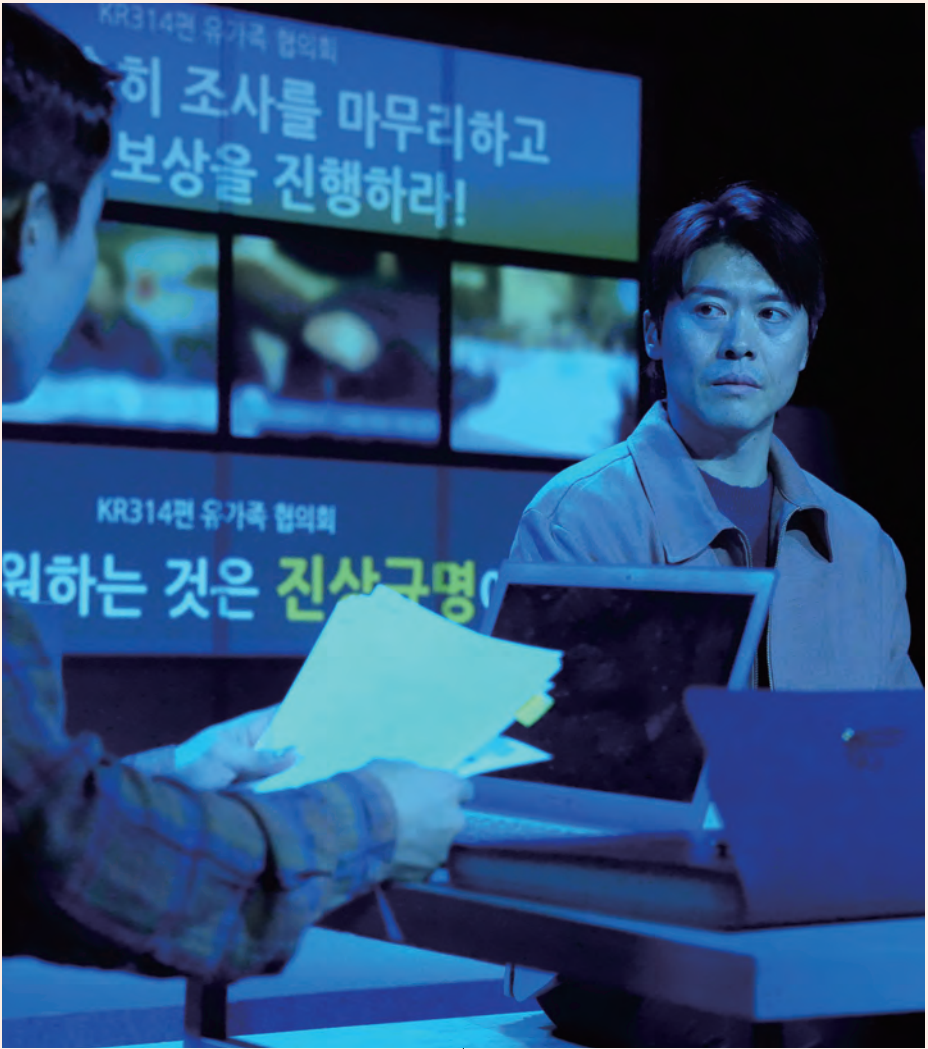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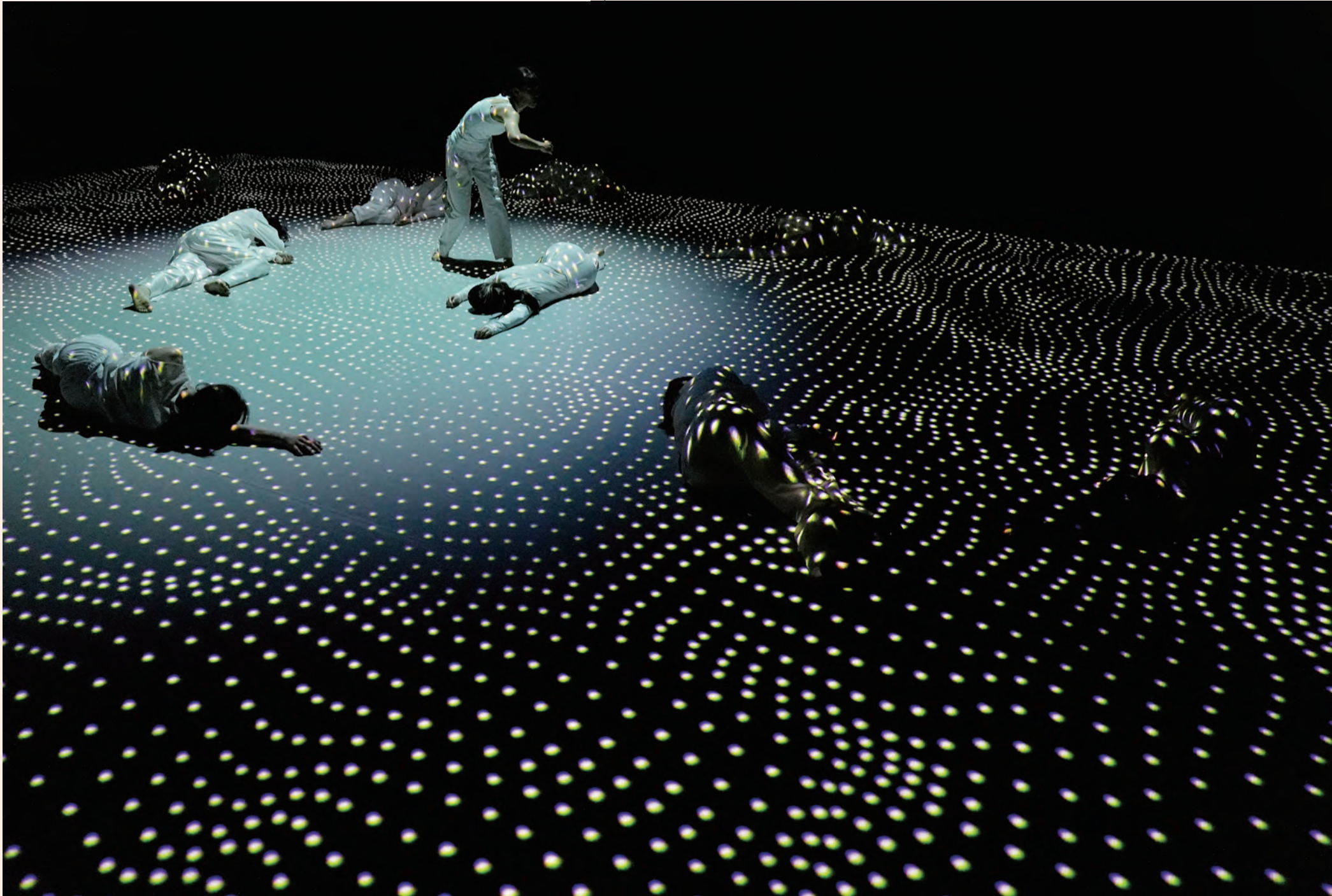
문화행정가로서의 보람 이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거쳐왔지만, 돌아보면 함께한 예술가와 시민의 얼굴이 가장 또렷하게 남는 것 같아요. 작품 제작과 실연에 몰두하던 예술가의 얼굴, 공연을 마주하며 즐거워하고 감탄하던 시민의 생생한 얼굴... 그런 순간들을 통해 문화예술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것이 비록 아주 미미하더라도 직접 목격하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행정가는 예술가와 시민, 그리고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그 사이를 더 자연스럽게 흐르고, 더 멀리 더 깊이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이 좀 더 풍성해지려면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지원사업을 기획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장르나 형식으로 규정하거나 정형화하기 어려운 생활 속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였는데요. 예술은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반려문화·식문화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충분히 예술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삶을 만드는 것, 또 삶이 예술이 되게 하는 것은 일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관찰하는 우리의 시선과 작은 예술적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프레데리크 르누아르Frédéric Lenoir의 인터뷰에서 마음에 남아 적어둔 문장을 독자에게 공유해봅니다. “존재는 사실이고, 삶은 예술이다.”

잊히지 않은 무대, 되살아나는 감정 퀴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에 수많은 작품이 제작되고 무대에 오른다. 2024년 일 년간 16,000여 편의 작품이 공연됐을 정도. 하지만 창작과 제작에 투여된 제작진의 노력과 고민에 비해 작품이 초연된 후 재공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상업극이나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국·공립 예술단체의 작품을 제외하면, 민간 예술단체나 기획사 등이 제작한 작품이 재공연을 거듭하며 레퍼토리로 자리잡는 사례는 드물다. 그 결과,

잘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등장하는 동시에 사장돼버리기 일쑤다. 작품의 ‘재연’이 단순히 레퍼토리 발굴과 육성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술단체와 현장에 문화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더 많은 관객이 다양한 예술 경험과 감상의 기쁨을 누릴 기회가 부족해진다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이는 공연예술 산업에도 피할 수 없는 ‘자본’이라는 물리적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 콰맨드 <시물라시움> ©예술창작공간 콰맨드
← 리케이텐스 <올더월즈> ©옥상훈

2022년 개관한 대학로극장 퀴드는 기획공연 ‘퀴드초이스’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장르와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시장의 현 상황에 주목해, ‘지금껏 공공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형태의 창작지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창작 초연’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해, ‘창작 중심 지원’에 집중하기로 한 것. 신작을 제작해 극장의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현장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구성을 위한 재공연을 지원해 웰메이드well-made 초연작의 재공연을 지원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과 예술가·예술단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공 극장인 대학로극장 퀴드의 새로운 역할과 상호 성장 구조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의 첫 시작으로 2025-2026 퀴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 ‘재연을 부탁해’ 첫 공모에는 490건에 달하는 작품이 접수됐고, 98 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으로 작품 5편이 선정됐다. ‘완성도를 갖춘 초연작인지’, ‘대학로극장 퀴드와 함께 공간·개념적 다양성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작품의 발전을 통해 레퍼토리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선정했다.

퀴드에서 감각하게 될 새로운 세계
① 다차원의 세상으로 끝없이 변신하는 초감각의 몸 리케이텐스 <올더월즈>는 간결하고 독창적이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춰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안무가 이경은의 2024년 초연작이다.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새로이 만나는 세계를 그렸다. 제3회 서울예술상 무용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퀴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선정작 중 가장 먼저 포문을 연다.

② 색다른 청취를 통해 감각하는 현실·비현실의 극적 경험 니터 〈땅 밑에〉는 SF 작가 김보영의 동명 단편 소설「땅 밑에」2022를 토대로 완성한 작품이다. 아직 아무도 끝까지 내려가본 적 없는 길, ‘나락’을 탐험하기 위해 관객은 헤드폰 너머 들려오는 이야기를 따라 그 길로 향한다. 이머시브 오디오극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한 극적 경험을 기대해도 좋다.

③ 마찰의 역설적 본질을 구현한다 예술서커스와 기술 융합을 시도하며 장르의 확장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안하는 팀 포스를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만난다. 이들의 작품 〈마찰〉은 저항성·운동성·방향성 같은 마찰이 가진 다양한 본질적 요소에 대한 탐구와 그 속에서



↑ 니터 〈땅 밑에〉 ©우란문화재단
← 창작집단 LAS 〈함수 도미노〉 ©김부영
→ 포스 〈마찰〉 ©FORCE-ARTECH

탄생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포스만의 감각과 움직임으로 구현한다.

극장에서 펼쳐지는 인간에 대한 동시대적 성찰과 탐구
④ 변화하는 관계 형태 속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AI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콤마앤드 〈시물라시옹〉은 AI 기술 시대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예술·감정적 경험을 결합한 독창성이 특히 돋보인다. 2034년이라는 근미래의 모습과 첨단기술의 모습을 연극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관람 포인트.

⑤ f(진실)=도미노, 그 함수를 풀어라 동시대 사회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재와 탄탄하게 짜인 극본으로 호평받은 마에카와 토모히로의 대표작 〈함수 도미노〉를 창작집단 LAS의 감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인셀^{incel}’ 문화,

페미니즘, 사회적 혐오와 분열처럼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절묘하게 맞물리는 지점을 드러내 강한 공감을 끌어낸다.

이번 시도를 통해 초연이 가진 생동감을 넘어, 재연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치며 더 나은 완성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학로극장 퀴드라는 가변 공간이 갖는 유연함과 자유로움의 매력이 작품에 더해져 다양한 공연 형식과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는 기획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2025-2026 퀴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라인업
리케이댄스 〈올더월즈〉 2025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콤마앤드 〈시물라시옹〉 2025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니터 〈땅 밑에〉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창작집단 LAS 〈함수 도미노〉 2026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포스 〈마찰〉 2026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삶을 쓰고 꿈을 그리는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

지난해11월 문을 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을 진행했다. 강북 센터 특화 장르인 연극·전통예술을 중심으로 9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따뜻한 봄을 예술로 물들였다.

배우 박호산·소리꾼 권송희와 함께한 토크콘서트 ‘사적인 예술’은 예술가의 삶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연극과 전통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갔다. 고전 라운지 ‘술샘고전클럽’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을 인문학 강연과 배우들의 장면 시연으로 풀어내며 고전의 동시대적인 가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창작워크숍 ‘play, play’는 연극과 전통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은 무대미술·판소리·극작 분야의 창작 과정을 몸으로 경험했다. ‘라이브씨어터’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관극 경험과 공연예술의 현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봄 시즌 창작워크숍의 백미는 〈기억의 조각 모음〉과 〈내 마음속 비밀극장〉이었다. 그중 〈기억의 조각 모음〉은 장·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 50세 이상 참가자들을 모집, 이들이 자신의 삶을 회곡으로 풀어내고 무대 위에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자 기획했다.

극작 경험도 지식도 제각각이던 참가자 20명이 4주의 짧은 기간 매주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극작부터 낭독까지 이뤄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이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섬세하게 이끌어 준 ‘극단 명작옥수수밭’이 있었다. 극단 명작옥수수밭은 강북 센터와 워크숍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해 작가학교 ‘리퍼퓨서원’을 20년간 운영하며 쌓은 비결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어색했던 첫 시간, 참여자들은 역동적인 게임과 내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 찾기로 서서히 마음을 열며 서로를 알아갔다. 이후 2주간 ‘엄마의 마음’, ‘친구의 죽음’ 같은 깊은 감정을 떠올리고, 긴 세월 잊지 못할 기억들을 조심스레 대사로 옮겼다. 마지막 시간, 각자의 기억이 낭독극으로 세상 밖에 꺼내질 때, 함께한 이들은 서로에게 깊은 위로를 느끼고 공감했다.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싶었다는 어르신은 “내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워크숍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내 마음속 비밀극장〉은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무대미술 워크숍이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무대미술가 여신동과 함께 ‘20년 후의 나’를 상상해 캐릭터와 무대를 디자인했다. 스케치와 묘사의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해나갔고, 마지막 날에는 직접 연출한 무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돼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문화재단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트에이지 서울’과의 협력으로 실제 공연에 사용된 소품과 의상을 재사용함으로써 더욱 생생한 무대 연출을 가능하게 했다.

“내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 좋았어요.” 워크숍이 끝난 뒤

아이들이 남긴 말처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해본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그려나가는 용기를 아이들 내면 깊숙히 심어준 시간이었다. 〈내 마음속 비밀극장〉워크숍의 결과물은 6월18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으로 이어진다. 무대 위에 펼쳐진 아이들의 꿈과 상상이 궁금하다면 강북 센터 3층 로비 및 전시실에서 그 생생한 장면을 만나보기를 권한다.

〈기억의 조각 모음〉, 〈내 마음속 비밀극장〉을 포함한 이번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 프로그램이 예술로 자신에 집중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용기를 갖게 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 오는 가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에서 어린이부터 장·노년까지 예술을 통해 일상 속 즐거움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살펴보기

‘포용’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도시 정책 어젠다가 됐다. 세계은행·유엔해비타트·유로시티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런던·뉴욕 등 글로벌 도시에 이르기까지 ‘포용도시’는 정책 목표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문화 정책 역시 사회적 포용을 중요하게 다뤘었다. 사회적 배제가 경제적 소득의 문제만 아니라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문화재단은 격년으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조사에는 ‘약자와 동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 포용도시 정책에 부합하는 조사 주제를 개발하고자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질문지를 만들었다. 포용도시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구분해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❶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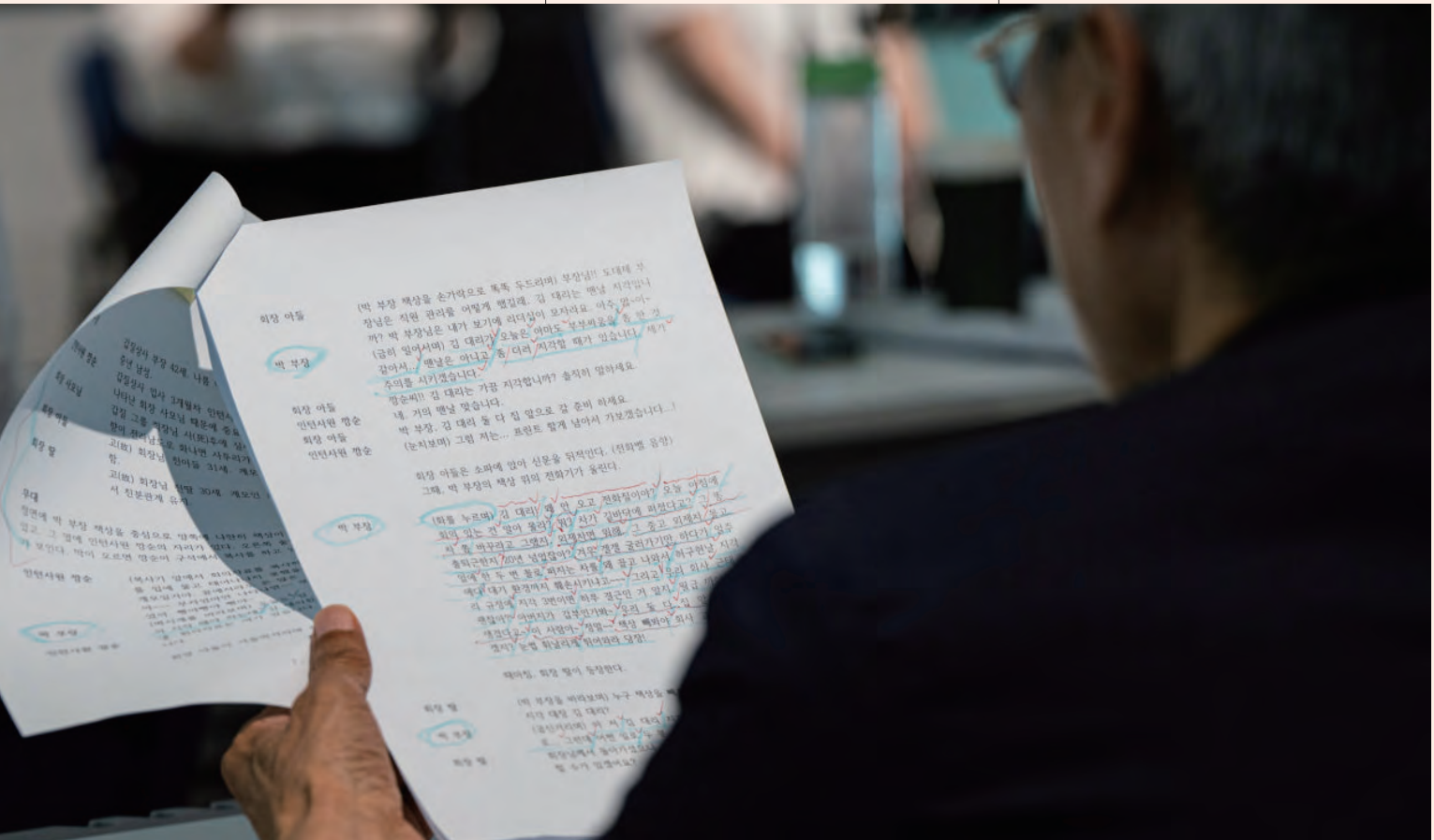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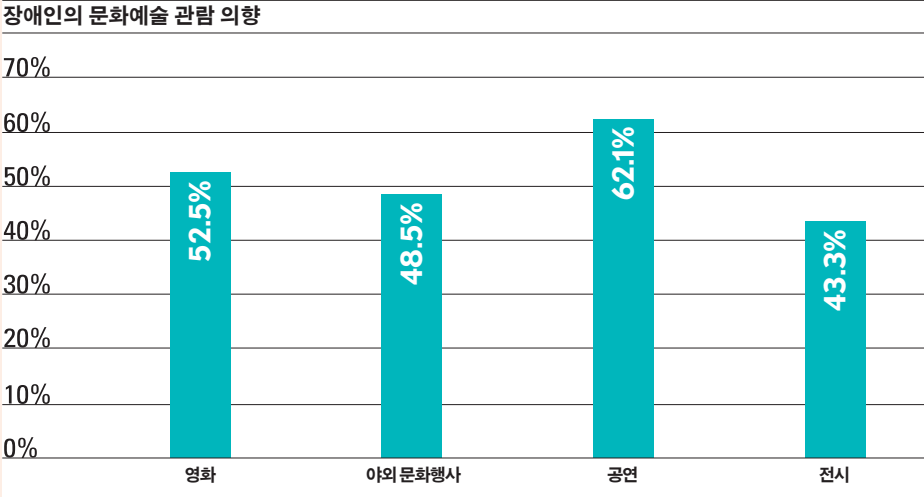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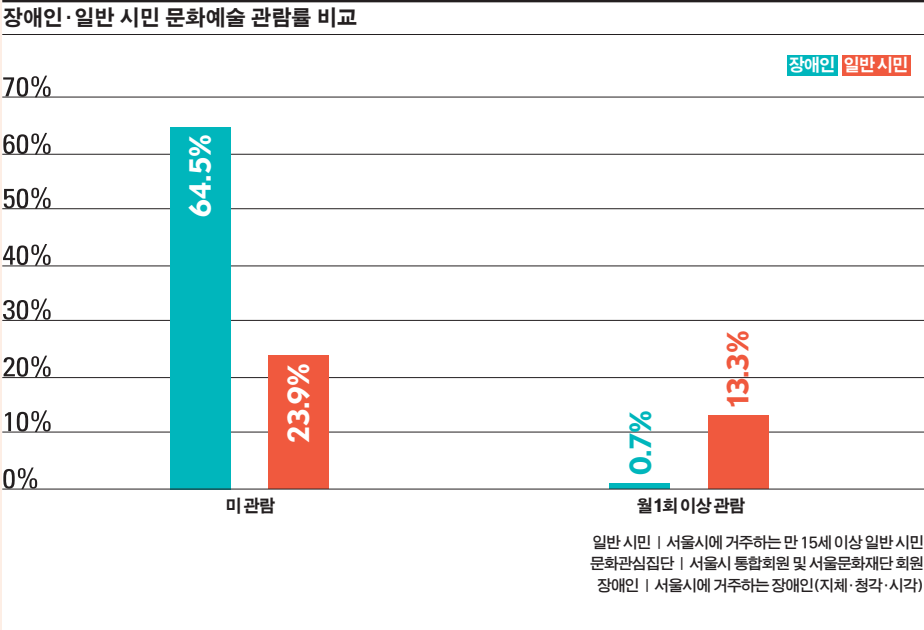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배제 위험이 큰 집단이고, 문화생활에도 제약이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지체·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해 지역별 비례배분 표집으로 755명을 조사했다. 일부 장애 유형에 한정된 점은 한계지만,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조사 결과를 산출한 점은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서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내외로 매우 낮았다. 그 대신 동영상 콘텐츠 시청, 휴식, 종교 활동 등 수동적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여가 활동’에서는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에 대한 희망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관람 희망

의향은 8.3%로 실제 관람 비율에 비해 약 7배 높다.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희망도 4%에 이른다. 육구는 존재하되 기회가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더라도 장애인은 미 관람 비율이 64.5%로 일반 시민(23.9%)보다 훨씬 높다. 반면, 월 1회 이상 관람 비율은 0.7%로 일반 시민(13.3%)보다 크게 낮다. 장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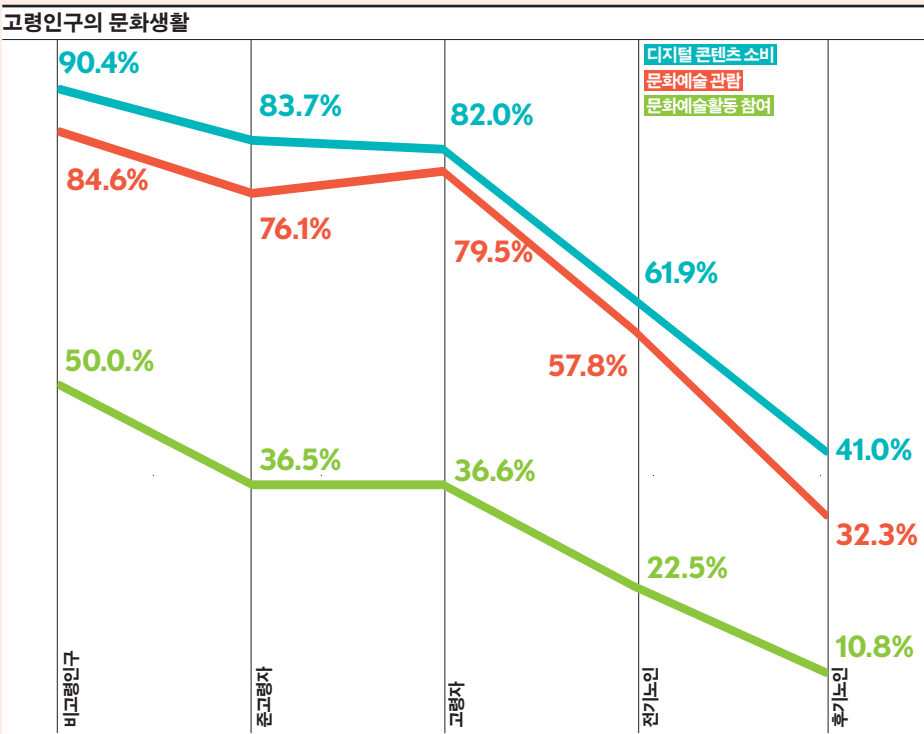
문화예술 관람 의향도는 50% 내외의 수준을 보여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울기 기울이기> 전시 오프닝
↳ 만 50세 이상 참가자를 위한 서울시민예술학교 강북 봄 시즌 창작워크숍 <기억의 조각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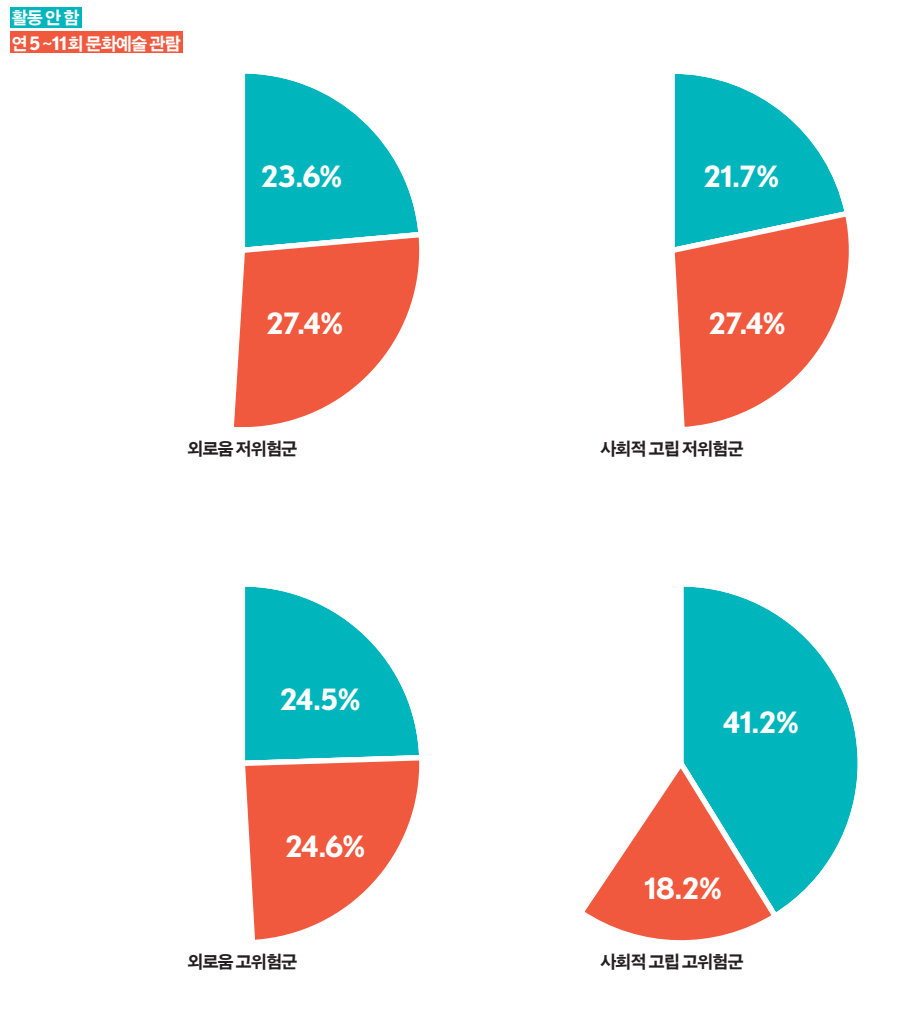


❷ 고령인구

사회적 배제가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개인 차원에서의 노화ageing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령화population ageing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인구를 준고령자(50~54세), 고령자(55~64세),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등 네 가지 세대로 나눠 문화생활의 참여 수준을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노화의 전 과정에 걸쳐 문화생활의 활동성이 줄어드는데, 특히 노인층에 접어들 때 급격하게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노화가 문화생활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고령인구 집단의 문화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문화예술이 중요”, “문화예술교육 통한 노후 준비 중요”, “노후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이 60%를 넘는다.



외로움 정도와 문화예술 관람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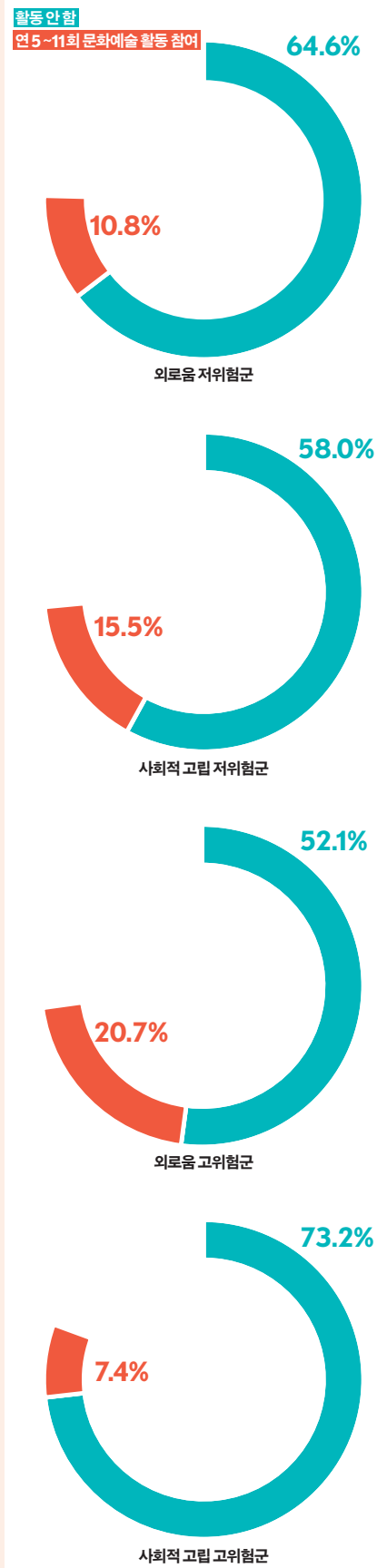


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근래 중요한 도시 문제로 대두됐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회로부터 심리·실제적 배제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삼성서울병원이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를 이용해 고위험군을 파악했다. 결과는 시민의 약 40%가 외로움 고위험군으로, 10%가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적지 않은 규모라는 점을 실증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화예술 활동과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적 고립의 경우 문화생활 전반의 참여율이 낮아 문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며, 이들에게는 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외로움의 경우, 고위험군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수준이 저위험군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았다. 문화생활이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건강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문화가 정서적 연결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로움 정도와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연관성



❹ 공간적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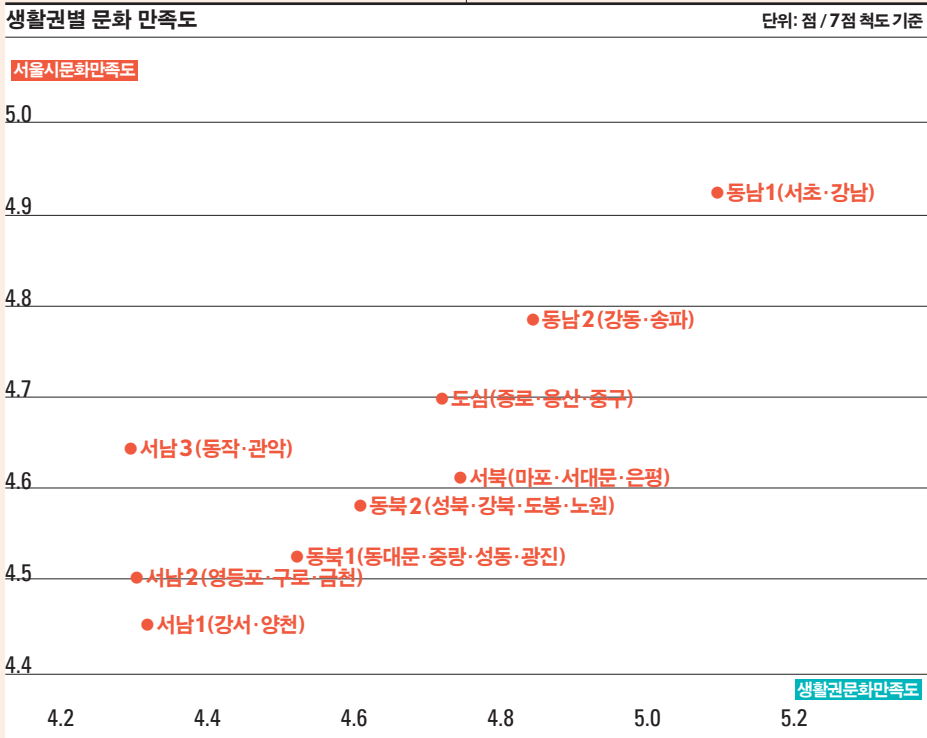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불균형은 사회적 포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전체를 9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정도를 살펴봤다.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한 것은 거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비율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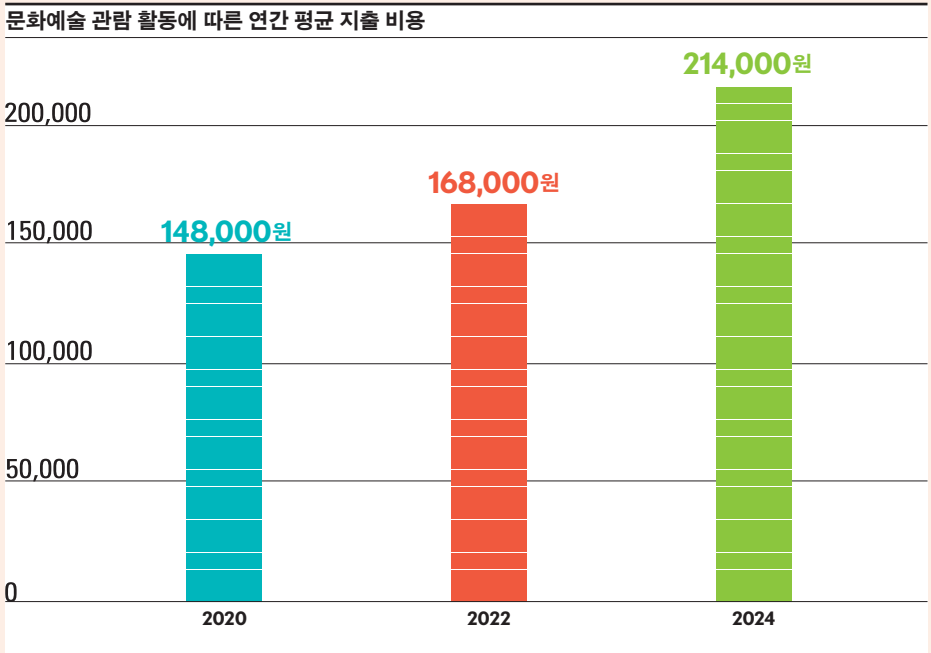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생활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비율이 거주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동남1권이 51.5%로 가장 높았고 서남3권이 28.3%로 가장 낮았다. 생활권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생활권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권 문화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서울시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즉, 시민이 서울의 문화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거주지 부근의 문화생활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활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울시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적 격차 해소가 가장 기본적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❺ 소득

2024년의 문화예술 활동 수준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면 회복세가 뚜렷하다. 문화 관람 경험률이나 비용·횟수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다. 변화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영화 관람에 비해 공연·전시 관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는 OTT 이용 확대에 따른 영화 관람의 축소도 있지만, 공연·전시 관람 활동이 더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영화 관람이 문화예술 관람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고, 여전히 영화 관람이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분야 중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제 영화에 편중된 문화생활의 다각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비용 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도 작용했지만, 자동화를 통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인적 투입의 비중이 높아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공연 같은 분야에서는 비용 질병cost disease을 초래한다는 고전적인 문화경제학 논의가 소환되고 있다. 이용 가격이 비교적 균일한 영화 관람에서, 비용 수준이 영화보다 높고 가격 차이도 큰 공연·전시 관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결국, 지금도 나타나는 소득 수준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과제는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문화의 가능성도,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키는 데 문화가 더 작용할 가능성도 보인다. 희망적인 점은 문화생활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경우 실제 참여율은 낮지만 의향은 높아, 이들이 '참여 가능한 환경'만 갖춰진다면 잠재적 참여자이자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고령인구 역시 나이가 들수록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높은 수준의 참여 의향을 보인다. 또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고위험군도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외로움 고위험군 60.1%, 사회적 고립 위험군 41.1%)이 높다.

포용도시를 위한 문화의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업 설계에 바탕을 둔 투자가 필요하다. 세분된 집단별 특수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희망하는 개선 방향이 다르다. 또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고위험군 분석에서도 이들 집단이 문화예술 참여와 가지는 관계의 복합성에서 볼 때 단선적인 접근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교한 사업 설계를 위해서는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모습.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내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두어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의학·임상심리·지역복지 등 다른 영역의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령화의 경우에도 고령층에 따른 문화예술 참여 동기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활권에 따른 불균형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공급을 늘려야 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고급 문화시설을 공급해야 할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하는 소형 갤러리·북카페 등 문화공간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수요 조사와 분석이 선행해야 한다.

끝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외 문화예술 관람 활동이나 관람료 할인 프로그램의 공급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술시장의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심 집단에 대한 정책적 수혜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반 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일반 시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문화예술 기관에서 확산하고 있는 시즌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실제적인 부담 경감을 실현할 수도 있다. 포용도시와 문화예술시장의 성장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개별 기관의 수준을 넘어선 시 차원에서 문화관심 집단 등에게 보너스 마케팅·프리미엄 마케팅·피델리티 마케팅을 시험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책, 솜뽕으로 뒤덮인 세계의 마지막 보루

우리는 ‘읽기’를 통해 세계를 받아들인다. 세계 자체가 거대한 텍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세계가 솜뽕과 알고리즘으로 뒤덮였다. 앞으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책은 마지막 ‘믿을 구석’이 될 수 있는가. 6월18일부터 22일까지 님새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던진 물음이다. 부스마다 펼쳐진 장사진을 보며 ‘정말 이 많은 사람이 책을 읽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오른다. 그것은 결국 ‘그렇다면 문학·출판 시장은 왜 어려운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도서전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동시에 출판계가 풀어야 할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책은 도서전이 끝날때까지 지켜야 할 명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은 책보다는 ‘굿즈’가 우선인 듯했다. 한정판 굿즈를 챙기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도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얻었다. 굿즈는 원래 미끼 상품이다. 예쁘고 아기자기한 상품으로 독자의 눈을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책을 사게끔 만드는 것이 굿즈의 목적이다. 본말이 다소 바뀌었다. “도서전을 찾은 분들은 거의 굿즈만 찾으시거든요. 남들 다 만드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한 출판사 홍보마케팅 부서 직원의 말이다. 출판사들은 저마다 재치 있는 굿즈를 내놔다. 유독 줄이 긴 곳은 책갈피 등을 판매하는 오이뮤이MU였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꼭삭 속았수다〉와 협업한 한정판 굿즈를 선보였다고 한다.

물론 출판사가 굿즈 솜은 아니다. 그들도 이곳에 고작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도서전을 찾은 많은 이가 결국 ‘독자’가 돼 오래오래 책을 읽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창비·문학동네 부스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다. 계산을 기다리는 독자들에 손에 시집이 여럿 들려 있었던 것. 세 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선을 내는 출판사다. 시는 어렵고 난해하다. 하지만 그래서 ‘힙’하다. 젊은 층, 특히 ‘젠지GenZ’로 명명되는 1020 세대 사이에서 시집의 인기는 상당하다. 도서전은 지난해부터 문학·출판계에 불고 있는 ‘텍스트힙’ 열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텍스트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인간힘을 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출판사들이 찾은 활로는 ‘개인화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음사의 ‘상상독서단’,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독서 유형 인바디’ 등 몇 가지 설문조사로 독서 유형을 분석한 뒤 책을 추천해주는 체험형 부스도 많았다.

이번 도서전이 큰 성공을 거둔 것엔 ‘셀러브리티’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 무제를 설립하며 문학·출판계에 혜성처럼 뛰어든 배우 박정민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김금희의 소설 『첫 여름, 완주』를 펴낸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판인으로 거듭난 박정민은 도서전 현장에서 직접 책을 판매하고 북토크를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하며 독자와 소통했다. 거의 모든 부스에 사람이 많았지만, 무제에 유독 사람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결국 무제 입장을 기다리는 인원을 위해 별도의 대기 공간까지 마련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도 올해 처음으로 도서전에 참가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책방지기로 활동하며 퇴임 이후 삶을 꾸려가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18일과 19일 도서전 현장에 참석했다. 18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해 “책으로 축적한 지식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됐고

경제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뤘다”고 축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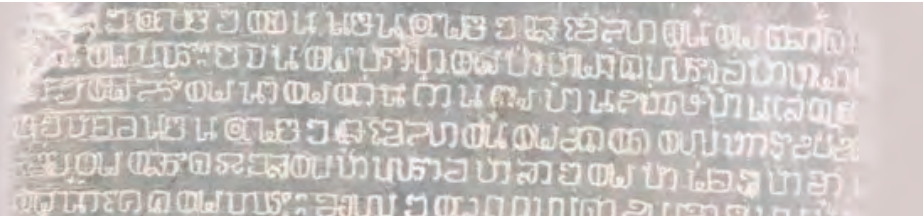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여성 작가 김명순의 첫 책 『생명의 과실』¹⁹²⁵ 출간10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기 위해 『애인의 선물』을 비롯한 작가의 대표작을 복각한 출판사 ‘핀드’, 강렬하고 그로테스크한 시어로 독자를 사로잡은 김언희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미술가 이미래의 책을 가지고 온 ‘임다’ 등 작은 출판사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이수지를 비롯해 신동준·정진호·노인경 등 한국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18명으로 구성된 작가 그룹 ‘바캉스 프로젝트’는 플립 북·아코디언 북 등 물성을 가진 그림책의 한계를 실험하는 독창적인 책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30대 학원강사 박모 씨는 인스타그램으로 살피던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에서 책을 사고 사인도 직접 받았다. 박씨는 “10년 전쯤 왔던 도서전과는 너무 편안”이라며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기는 하지만, 예쁜 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서전 3일 차를 맞은 지난 20일. 수많은 인파에 ‘기가빨려’ 잠시 코엑스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쉬고 있었을 때였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여성의 대화에 귀가 쏠렸다. “오늘 고선경 시인 사인회 한단데? 좀 이따 여기 가볼래?” “그러자. 그런데 있잖아, 요즘 허세로 책 읽는다고들 하잖아. 나는 아니거든. ‘도파민’ 터져서 본단 말이야...” 뒷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았다.

즐길 거리가 책밖에 없던 시절에 책은 정말로 ‘도파민’ 가득한 오락거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매분, 매초 맞춤형으로 떠다 먹여주는 시대. 아주 길어야 1분이면 완성된 콘텐츠 하나를 소비할 수 있게 된 시대. 진득하게 앉아 몇 시간, 몇 날을 붙잡아야 한 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책은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 책을 만드는 이는 고민해야 한다. 유튜브가, 넷플릭스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책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럴 때라야 비로소 책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 ‘믿을 구석’이 될 것이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태국 영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하지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4월 17일 유네스코는 2025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Register에 74건의 기록물을 새롭게 등재했는데, 이 중 태국의 기록물이 3건 게재돼 태국의 역사·문화·외교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국제 사회에서 강조됐다. 태국 정부는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태국의 문화, 불교, 예술 및 문화가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는 이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전 세계 72개국과 국가 간 기구 4곳의 목록 총 570건이 등재돼 있다. 태국은 2003년에 등재된 ‘람캄행 왕의 비문’을 비롯해 올해 3개 목록, 즉 ‘난토팔난타숫캄루앙 필사본The Manuscript of Nanthopananthasut Kamlaung’, 영화〈백상白象 왕〉과 관련 문서The King of the White Elephant and the archival documents, 그리고 태국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설립 문서The Birth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가 추가로 등재돼 총 9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 가운데 태국의 정체성과 인류 공동의 유산 가치를 확인받아 제작된 지 85년 만에 등재된 영화〈백상 왕The King of the White Elephant〉1940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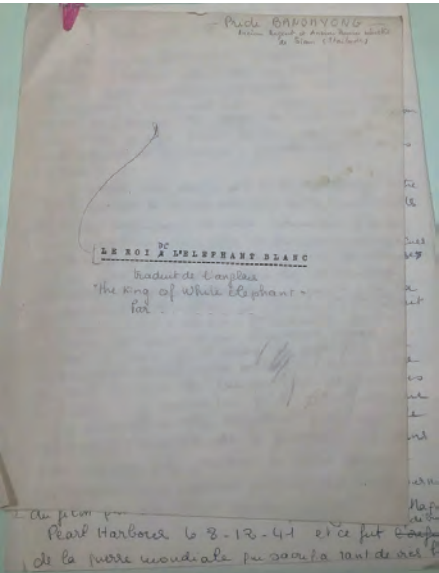
〈백상 왕〉은 1940년 당시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뿌리디 파놈용Pridi Banomyong, 1900–1983(태국의 정치인·법률가·사회운동가이며, 탐마삿대학교를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타이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했다)이 자신이 쓴 동명의 영어 소설을 각색해 제작한 장편 영화다. 뿌리디 파놈용이 제작 및 각본을 맡고 순 와수타라Sunh Vasudhara 감독이 연출한 35mm 흑백 영화로, 동시 녹음으로 제작됐다. 이 영화는 1941년 4월 4일 싱가포르·뉴욕에서 같은 날짜에 동시에 공개됐으며, 정의로운 아유타야의 왕인 짜끄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미얀마의 홍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짜끄라 왕의 백상을 강제로 요구하자 짜끄라 왕은 직접 군대를

← 람캄행 왕의 비문 ©The National Museum Bangkok

↓ 난토팔난타숫캄루앙 필사본 ©The Fine Arts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Thailand



이끌고 맞서 싸워 승리하고, 미얀마인을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영어로 제작된 최초의 태국 영화로, 제작자가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한 의도를 반영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에 태국의 평화주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영화를 통해 국제 사회에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전 세력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자 했다. 기록 보관 측면에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에 제작돼 유일하게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태국 영화로, 당시 최고의 인기 오락물로 꼽히던 대중매체인 영화를 보여주며 태국 전통 공연 방식과 서구 영화 기법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라는 이상을 강력하게 선포하려는 의지를

↑ 〈백상 왕〉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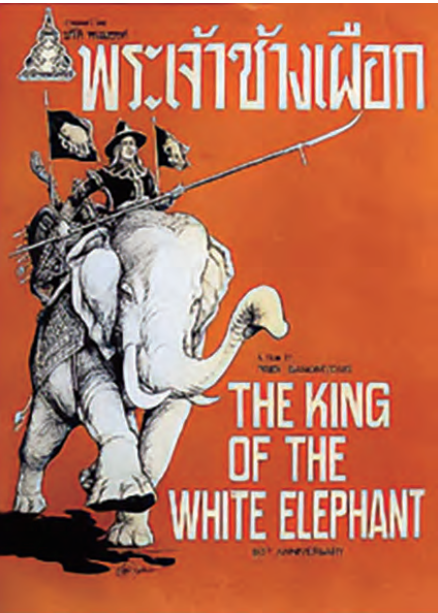
→ 〈백상 왕〉 50주년 기념 포스터

← 〈백상 왕〉 관련 문서 ©The Fine Arts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Thailand

담고 있다. 영화〈백상 왕〉의 핵심은 제작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통치와 지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의도는 영화의 서두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막이 흘러가며 시작한다.

“이것은 400년 전 아요타야를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검으로 왕국을 지켰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코끼리가 풍부한 이 땅에서 흰 코끼리는 가장 고귀하게 여겨졌고, 백성들은 그들의 기사도적인 군주를 ‘백상 왕’이라 칭송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짜끄라였습니다. 그는 궁정의 허영을 사랑하지 않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평화를 사랑했고, 이 이야기는 평화를 위해 헌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영화 제작 당시 태국 방콕의 모습을 보여준 뒤, 1540년의 아요타야Kingdom of Ayodhya로 시공간을 이동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코끼리는 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특히 흰 코끼리, 즉 백상은 희귀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신성시됐기에 실제로 역사 내에서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백상 왕’이라 불린 짜끄라 왕을 이상적인 군주로 설정하고, 16세기에 일명 ‘백상 전쟁’으로 불린 태국(아유타야 왕국)과 미얀마(버마)의 역사적 배경을 빌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뿌리디 파놈용의 평화관을 세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불과 8개월 후인 1941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은 태국으로 확산됐는데, 당시 태국은 뿌리디 파놈용이 이끈 자유 타이 운동(제2차 세계대전 기간 태국의 지하 항일 운동) 덕분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태국은 20세기 초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백상 왕〉은 1940년에 당시 최신 기술인 35mm 흑백 필름과 동시 녹음이라는 획기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든 장편 영화다. 아울러 반전 영화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태국의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자 인류의 주요 근간인 평화 문제를 제기해 1930~40년대 태국의 영화 및 외교사에 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현재의 사람들은 영화라는 매체로 기록된 백상 왕의 이야기를 경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태국과 태국의 외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이 영화가 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기여하는 점일 것이다.

〈백상 왕〉은 단순히 태국의 영화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일부로서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 영화를 보존하고 있는 태국 국립영화기록소에서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공개했으니, 기회가 된다면 감상해보시기를 바란다.

SEOUL
MY SOUL

모든
사람의
문화
서울문화재단



제3회 서울희곡상

접수기간 2025. 9. 1. (월) ————— 2025. 9. 15. (월) 18:00

서울문화재단은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함으로써
희곡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희곡상을 운영합니다.
새로운 상상과 시도가 있는 작품을 기다립니다.

지원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sfac.or.kr)

지원자격: 개인(신인 및 기성작가)

공모부문: 창작/장막 희곡



공모 바로가기

일러스트: 이수빈
@soft_shape_

COOLINK

명곡의 뒤편길

사뭇 다른 '세탁기 노래'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줌는다

"밥은?"이라는 말—밥빼기와 밥심

멈추면 보이는 것들

예술로 빛나는 도시의 얼굴

국악 칼럼이라기엔 속스럽지만

이게 다, 노트북 때문이었다

사뭇 다른 ‘세탁기 노래’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수염이 텅수룩한 외국 남성이 기타를 들고 세탁기 앞에 앉아 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약간은 긴장된 표정이다. 세탁기에서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전자음 선율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남자는 기타로 화음을 넣기 시작한다.

유튜브에서 ‘세탁기 노래wash machine song’로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영상 중 하나다. 세탁기는 국내 양대 가전사 중 하나의 것. 영상은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역량을 나타내는 징표로 뿌듯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 연주는 여러 영상의 일부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로 여러 성부를 덧입혀 리믹스한 영상을 올렸다. 아예 피아노를 세탁실에 갖다 놓고 피아노 반주로 세탁기와 협연한 사람도 있다. 이런 수많은 영상이 더러는 수백만 회씩 조회수를 올렸다.

예외는 있지만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은 이 노래의 정체가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없이 그냥 ‘세탁기 노래’로만 나와 있다는 점이다. 댓글을 살펴봐야 원곡을 알 수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때로는 댓글에마저 없다. 지식욕이 강한

한국인이라면 제목 또는 눈에 띄기 좋은 곳에 원곡의 제목을 표시했을 것이다. 이 신호음은 프란츠 슈베르트 ‘송어’에 나오는 선율이다.

이 곡은 두 버전이 있다. 슈베르트는 1817년 가사가 있는 가곡 ‘송어’를 썼고 2년 뒤에는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를 위한 5중주곡의 4악장에 이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곡(특정 선율을 여러 가지로 변형하거나 장식을 넣어가면서 거둬 연주하는 형식)을 넣었다. 이 작품은 슈베르트의 ‘송어 5중주곡’으로 불린다.

필자가 중고생이던 시절 학생들 사이에 널리 유행해 식상하다시피 한 개그가 있었다. 음악 과목 시험에 악보와 함께 ‘이 곡의 작곡가와 이름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덩달이(철수나 영희여도 상관없다)는 시험공부를 하면서 ‘슈베르트니까 시옷, 슈베르트 송어’라고 암기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 어느 자음(당소리)이었는지 헛갈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은 답을 적었다. ‘베토벤의 붕어’.

베토벤은 붕어 5중주곡을 쓰지 않았지만, ‘도미 5중주곡’은 있다. 미국 피바디 음대 교수인 케빈 푸츠Kevin Puts가 작곡한 5중주곡 ‘도미The Red Snapper’다. 슈베르트 ‘송어’와 같은 편성으로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며, 악장 하나를 ‘주제와 변주’로 구성한

점도 ‘송어’와 닮았다. 이 곡은 2021년 예술의전당에서 실내악 연주단체 ‘앙상블 이볼브’가 국내 초연했다.

애기가 결길로 썼지만, 이 곡의 선율은 ‘세탁기 노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 들어봤어’라고 할 만한 친근한 멜로디다. 그런데 이 곡이 슈베르트의 반체제 정신을 담은 ‘저항 음악’이라면?

이 곡의 원곡이 가곡이었으니 작곡가 슈베르트 외에 작사자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작사자의 이름은 크리스티안 슈바르트Christian Friedrich Daniel Schubart다. 슈바르트 작사·슈베르트 작곡. 운율도 딱딱 맞아떨어진다.

크리스티안 슈바르트는 독일 서남부 출신의 시인이자 음악가였고 당대 독일의 이름난 반골, 말하자면 반체제 인사였다. 그는 당시 여러 나라로 분열돼 봉건 제후들의 압제 아래 놓여 있던 독일의 실상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다. 그가 감옥에서 쓴 시 중의 하나가 ‘송어’다.

그리고보니 그동안 가곡 ‘송어’를 들으면서 계속 들던 의문이 다시 떠오른다. 송어는 단지 명량한 노래일까? 노래 후반부에는 뜻밖의 가사가 등장한다.

“도둑(낚시꾼)에게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고, / 그는 개울을 휘저어 흐리게 했다. / 그리고 눈치채지 못할 사이에 /

낚시줄이 팽팽히 당겨졌고 / 송어는 잡혀 허우적거렸다. / 나는 화가 끓어오르는 체 / 속임수에 넘어간 송어를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낚시의 정경과는 다르다.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감옥에서 이 시를 쓴 슈바르트는 시냇물을 휘저어 송어를 잡는 낚시꾼의 모습에서, 권력자가 음모를 써서 정적을 잡아넣는 일을 풍자하고 비판한 것 아닐까.

슈베르트가 가곡 송어를 피아노 5중주로 새롭게 쓴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1819년 7월 13일,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북부의 도시 슈타이어에 갔다. 그곳에는 지역 유지이자 광산주인 파움가르트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젊은 작곡가를 두 달 동안이나 각별히 대접했다. 조건은 하나였다. “송어는 저와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연주할 수 있도록 송어의 선율을 넣은 실내악곡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곡에 열광한 시골 유지들의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 혹 당시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당시 유럽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가곡 ‘송어’가 쓰이기 2년 전인 1815년 유럽 국가 사이에 나폴레옹 전쟁을 결산하는 빈 의정서가 체결됐다. 내용은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구체제(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복원이었다.

저항의 내용이 담겼다고 해도 결국 가사를



쓴 슈바르트의 내면을 반영한 것이지 슈베르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명명해석가이자 역사학자인 이언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의 책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는 시를 즐겨 쓴 슈베르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시가 실려 있다. 제목은 ‘민중에게 보내는 탄식’이다.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슈베르트와 사뭇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여, 너는 스러졌구나! / 무수한 민중의 힘이며, 허무하게 소진되었구나 / 누구 하나 민중으로부터 차별되지 않지만, / 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구나...”

보스트리지는 책에서 ‘송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거둬 말하거니와, 필자의 상상일 뿐이다.

여름의 정취와 함께 즐기는 ‘송어’가 궁금하다면

정명훈과 비르투오지
7월3일 오후7시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명훈(피아노), 클라라 주미 강·김재영(바이올린), 박경민(비올라), 송영훈(첼로), 성민제(더블베이스), 김한(클라리넷)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베토벤 클라리넷 3중주 외

원시原詩를 쓴 동기가 무엇이든, 이 곡은 여름을 맞아 듣기에 제격인 작품이기도 하다. 가곡도, 피아노 5중주도 청신한 기분으로 가득차 있다. 슈베르트가 7월에 지역 유지들의 초청을 받아 간 슈타이어에도 맑은 개울이 흐르고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송어 5중주’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이 곡은 여름이면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야외 여름 음악제에서 즐겨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1967년 미국 말버러 음악축제Marlboro Music Festival에서 녹음된 ‘송어 5중주’ 음반을 들어보면 가곡 ‘송어’의 주제가 흐르고 나서 다섯 연주자가 숨을 죽이는 순간, 또록또록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작지만 분명한 귀뚜라미 소리다. 말버러 음악축제도 풀밭이 있는 노천에서 청중이 연주를 감상한다. 자연의 뛰어난 음악가인 귀뚜라미들도 아름다운 화음에 동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밥은?”이라는 말 —밥빼기와 밥심

오은 시인

경산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강연하는 날이었다. 행사장인 도서관에 일찍 도착해 이리저리 둘러보다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았다. 앉은 자리 바로 옆에 국어사전이 놓여 있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리로 손을 뻗었다. 앉은 자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 바로 그 자리”를 뜻하는 ‘앉은자리’가 되던 순간이었다. 우연히 펼친 페이지에는 ‘밥’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한가득했다. 밥숟뚜껑을 열고 갓 익은 밥을 주걱으로 조심스레 뒤섞듯 단어 하나하나를 살피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사전을 보시네요?” 선생님 한 분이 놀란 말투로 물으셨다. “저는 사전이 제일 재미있어요.”

처음 마주친 단어는 ‘밥풀눈’이었다. “눈꺼풀에 밥알 같은 군살이 붙어 있는 눈”이라는 뜻인데, 밥풀눈을 가진 사람은 ‘밥풀눈이’라고 한다. 어른들은 먹을 복 있다고 얘기하는 그 눈, 웃을 때 더욱 도도룩하게 도드라지는 눈을 떠올리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에 눈길이 간 단어는 ‘밥빼기’였다. 난생처음 만난 단어였지만, 예문을 읽어보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도 했다. 밥빼기는 “동생이 생긴 뒤에 아우 타느라고 밥을 많이 먹은 아이”를 뜻하는데, 예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전에는 잘 안 먹던 아이가 동생이 생긴 뒤로 갑자기 밥빼기가 되었다.” 심리적 허기를 달랠 방도가 달리 없어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을 만이를 생각하니 측은하게 느껴졌다.

본격적인 단어의 모험은 이제 시작이다. 첫걸음으로 아우를 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 ‘타다’를 찾아보았다. 아우를 타는 것은 영향을 쉽게 받는 것, 자극에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아우를 타면 먼저 태어난 젖먹이는 관심을 덜 받게 되어 여위기 마련인데, 그 상태를 극복하고자 밥빼기의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것으로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뺨셈하는 것을 의미하는 빼기는 아닐 테니, 이제는 접미사 ‘-빼기’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접미사 ‘-빼기’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를 일컫는데, 곱빼기·밥빼기·악착빼기 등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곱의 성질, 악착의 양상을 떠올리니 고개를 절로 끄덕여졌다.

세 시간 넘게 이어진 강연은 9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지역에서 강연을 막 마쳤다고 하니 다급하게 묻는다. “밥은?” 별안간 튀어나온 친구의 물음에 웃음이 터졌다. 의례적인 인사였겠지만, 밥을 담은 단어들을 강연 전에 그릇째 섭취한 터라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강연장에서의 환대 덕분이기도 했으나,

상대가 쓰는 따뜻한 마음에 허기가 완전히 가신 것이다. 보통은 배부름이 마음 부름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마음 부름이 배부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기도 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말이다.

전화를 끊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가신 허기가 금세 다시 오신 것이다. 우연이 필연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마음 부른 내면이 더 이상 배고픔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웠으니 채워야 했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마른밥이든 까치밥이든 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연장에서 받은 샌드위치를 꺼내 크게 한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그것을 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끼니때가 지난 뒤에 차리는 밥”을 ‘한밥’이라고 하고 “먹다가 그릇에 남긴 밥”을 ‘대궁밥’이라고 한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머릿속으로는 한밥과 대궁밥을 생각하자니 사람에게 밥때가 왜 있는지,



©국립민속박물관

“누에 몸에 광택이 나고 살이 찌며 식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가리켜 왜 ‘한밥때’라고 하는지 새삼 알 것 같았다. 어쩌면 “밥은?”이라는 말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끝끝내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른다. “국수나 떡, 과자 같은 것 없이 밥과 몇 가지의 반찬만으로 차려서 벌이는 간단한 잔치”를 ‘밥잔치’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한국 사회에서 밥이 갖는 굳건한 위상을 보여준다.

“그릇 위까지 수북하게 담은 밥”은 ‘고봉밥’ 혹은 ‘감투밥’이라 불린다. 고봉은 외따로 높은 산봉우리를 뜻하는 고봉高峯이 아니다. 높게(高) 받든다(擲)는 의미의 고봉高擲이다. 감투는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인데,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높게 받든다는 말이다. 밥 먹는 게 다름 아닌 벼슬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감투밥이나 고봉밥을 주는 마음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상대에 대한 곡진한 마음 없이는 밥 푸는 손은 거칠 수밖에 없다. 고슬고슬 익은 밥알이 다치지 않도록 주걱으로 젓고 그것을 적당히 덜어내는 손길을 떠올려보라. “아기에게 처음으로 밥을 먹일 적에, 밥을 미리 씹어서 아기에게 되먹이는 일”을 가리키는 ‘밥물림’은 또 어떤가. 먹고 살고 사랑하는 일이 모두 밥 안에 있다. 밥알에 있다.

쌀이 귀하던 시절, 쌀밥은 ‘옥玉밥’이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콩밥’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또한 ‘옥飯’이다. 밥을 지을 때 넣는 재료에 따라 연잎밥·달걀밥·기장밥·비지밥·도토리밥·보리밥·강냉이밥·콩나물밥·산나물밥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니, 비읍으로 시작해서 비읍으로 끝나는 밥답게 밥은 순환하는 것 같다. 한편, “술 안에 쌀을 언덕지게 안쳐서 한쪽은 질게, 다른 쪽은 되게 지은 밥”은 ‘언덕밥’이라 불린다. 취향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어떤 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언덕밥을 짓기도 할 것이다.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 ‘드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얻어먹는 밥은 ‘드난밥’이다. 어느 정도는 ‘눈칫밥’일 것이다.

밥이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다른 말로 ‘밥자리’나 ‘밥마가지’라고 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줄시 「이력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밥을 먹고 쓰는 것. / 밥을 먹기 위해 쓰는 것.” 밥벌이가 숭고한 이유다. 한편, 밥을 하면 떠오르곤 하는 단어에 ‘죽내다’도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이나 죽내는 쓸모없는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로 ‘밥주머니’가 있고 “밥을 제대로 사키지 못해서 하는 지랄이라는 뜻으로, 놀고먹으면서 하는 일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쓸모없거나 못된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가리켜 ‘밥지랄’이라고 한다.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밥이 있는 셈이다. 먹어도 못 먹어도, 많이 먹어서 적게 먹어서, 빨리 먹어도 천천히 먹어도, 밥값을 해서 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밥상머리 앞뒤에서 밥을 이야기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젓밥을 짓는 것까지가 밥의 역할이다. 삶의 시작부터 죽음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데 밥이 있다. 그것을 둘러싼 간절한 마음이 밥심^心이고, 그것으로 발휘되는 힘이 밥심^力이 될 것이다. 끼니가 다가오는 한, 밥심은 닳는 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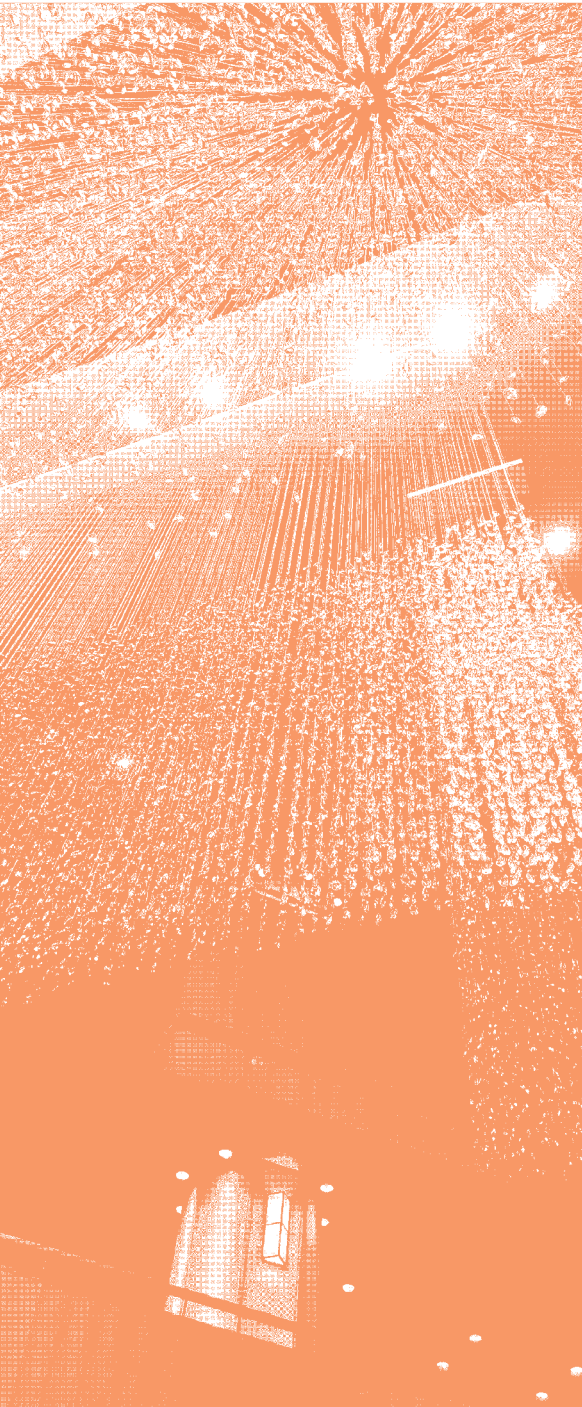
예술로 빛나는 도시의 얼굴

조상인 백상미술정책연구소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별들이 무리지어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가깝고 닿을 듯 생생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계속 건기만 한다면 하늘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신라호텔. 이곳 로비에 들어설 때면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자전적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¹⁹¹⁶의 후반부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은하수의 한 무더기 별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아서다. 힘껏 뛰어오르면 저 별들 중 하나를 움켜질 수 있을 듯하다. 2층 높이의 신라호텔 로비 입구에서 마주하는 5만여 개의 작은 별들. 7미터 너비의 천장에 가늘고 투명한 낱싯줄로 수정처럼 보이는 투명 아크릴 비즈를 하나하나 묶어 매달아 놓은 조각가 박선기의 설치 작품 〈조합체An Aggregation 130121〉이다.

조이스의 소설에서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는 종교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해안선을 따라 걷던 중 별무리를 만난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없는 줄 알았던’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선명해진 밤의 풍경이 각성과 삶의 전환을 이끌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라호텔 로비의 이 상들리에형 작품이 디덜러스의 별이 될지도 모른다. 은하수가 땅으로 땅으로 내려온 양, 새벽 기운 머금은 이슬처럼 작품이 반짝인다. 바로 밑에서 올려다보면 어른거리는 투명 낱싯줄이 마치 내리다 공중에서 멈춰버린 빗방울 같다. 시간이 정지된 영화 속 장면처럼 이곳에서의 순간을 영원토록 가슴에 새겨두라 속삭이는 듯. 작품은 2006년 이곳 로비에 설치된 후 단번에 신라호텔의 얼굴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대형 호텔들이 앞다뮬 박선기 작품을 찾는 기폭제가 됐다. 2013년에는 호텔 리뉴얼에 맞춰 작가가 작품의 모양을 약간 바꿨다. 작품명 ‘130121’은 수정한 그 날짜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에는 투명 아크릴 외에 검은색 아크릴을 추가해 풍성함을 더했다.

박선기는 원래 ‘숲의 작가’였다. 그가 ‘변화한 나무의 형태’로서 숲을 작업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보통 조각가는 나무나 숲을 깎고 다듬지만, 그는 숲을 매달았다. 아기가 태어난 집에 숲을 매다는 ‘금줄’처럼 숲은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투명한 줄에 새까만 숲을 매단 그의 작업은 공간에 펼쳐진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2006년 김종영조각상도 이 숲 작업으로 받았다. 이후 어두운 곳에서 숲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을 보완하며 아크릴 비즈를 매달기 시작했고, 그 첫 무대가 신라호텔이었다.

이곳 로비에서 또 한 명의 ‘숲의 화가’를 만날 수 있다. 숲덩어리를 화폭에 붙이고 같이 만든 〈불로부터〉연작으로 유명한 이배의 최근작 〈붓질Stroke〉두 점이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통로 양쪽을 차지했다. 원래 이 자리는 존경받는 원로 화가 김홍주의 회색조 꽃그림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프리즈 서울 기간에 맞춰 작품을 교체했다. 그 바람에 박선기의 작품과 더 각별한 조화를 이루게 됐다. 이배의 작품은 두 점이 각각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의 대작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가난한 화가 이배는 문득 짠 값에 두둑하게 살 수 있는 숲에 눈이 갔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자리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숲입니다. 일상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순수성을 지닌 존재가 숲이죠. 불 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불이면 다시 불붙는 생명의 에너지를 품은 것 또한 숲입니다. 자연의 마지막 모습인 동시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 순환의 근본이죠.”

물감 대신 숲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의 숲은 빛이오, 숲이오, 혼이다. 백 가지 색깔을 머금고 있는 검은 숲은 결을 달리해 제각각의 빛으로 반짝인다. 쌓아놓은 숲은 숲을 이뤄 설치 작품이 됐고, 숲가루를 개어 만든 먹으로 일필휘지한 드로잉에는 혼이 담겼다. 수묵화에서 온 듯한 그의 〈붓질〉연작도 근원은 숲이다.

장충동에 신라호텔이 들어선 배경에는 영빈관이 있다. 195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민용 숙소를 지시해 터를 다지기 시작했으나 공사와 중단을 반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숨에 밀어붙여 1967년에 준공된 한옥 건물이 해외 귀빈을 위한 곳 ‘영빈관’이다. 국빈을 위해 사용되다 1973년 정부가 매각을 결정했다.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은 평소 “호텔은 도시의 얼굴이며 일국^{一國}의 얼굴”이라 했다. 그는 “서울에는 한국의 얼굴이라고 내세울 만한 호텔이 없어서 찬란한 우리 고유의 문화를 꽃피운 신라 시대의 우아한 품격의 향기를 재현”하고자 영빈관 인수를 결심해 호텔신라 건설에 돌입했고, 1978년 준공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한국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예술을 통해 더욱 빛나는 곳이 됐다.

이게 다, 노트북 때문이었다

송현빈 음악평론가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무장을 마쳤다는 뜻이다. 급하게 확인해야 할 건이 있는데, 지나가던 길이나 로비에 작은 테이블이라도 있다면

감사할 뿐이다. 더운 여름이라면 에어컨이 가동되고, 옆에 정수기라도 있다면 더욱욱 고맙다.

문제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다. 급하게 들어간 카페에서 콘센트가 있는 자리부터 탐색해야 한다. 하지만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에 비하자면 콘센트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럴 때마다 머릿속에는 묘하게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떠오른다.

우리의 콘센트를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1991년 방송을 시작해 20년 넘는 세월 동안 라디오 전파를 탄 프로그램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민요·굿·노동요·상여소리 같은 전래 음악은 물론 대숲을 스치는 바람과 냇가의 물소리까지 기록한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문화 인류학적 보고라 해도 좋겠다.

어느 기사인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의 최상일 프로듀서의 유언은 이러했다고 한다. “내가 죽으면 배터리와 함께 물어달라”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오지에서 전송되는 한국의 전래 노래를 담은 것이었다. 이를 위해 프로듀서는 산을 넘고, 강 건너 소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그 소리를 채집하기 위한 녹음 장비의 배터리는 지금보다 훨씬 컸겠지만, 그 기능은 지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노래가 풀리며, 한 많은 세월의 빗장이 풀리고, 희로애락의 선율을 녹음테이프에 담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니 전통음악의 그린벨트로 탐사를 떠난 소리의 모험가는 결국 소리의 발전에 기뻐하지만, 방전되는 배터리의 공포와 사투해야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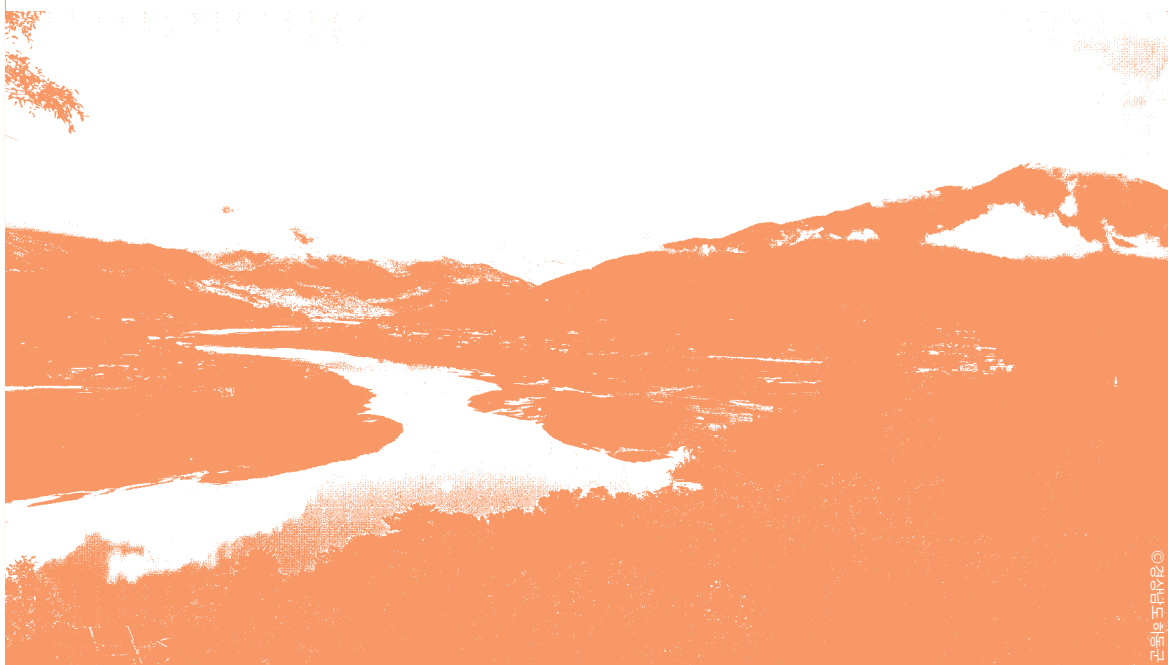
결국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떠오른

이유는 배터리 공포에 시달린 프로듀서의 유언(?)과, 나 역시 ‘우리의 콘센트를 찾아서’ 방향하기 때문이다. “충남 연기군 〇〇〇 씨가 소모는 소리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소개 멘트처럼, 지금의 21세기를 넘어 28세기가 되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곳으로 가도~ 막혀 있고~ 저곳으로 가도~ 막혀 있고~ 이 소리는 서울 어느 음악평론가가 카페에서 콘센트 찾는 소리입니다.”

노트북이 있으면 편하다. 하지만 가끔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한다. 합리적 이성이 오히려 정신병이라는 사회악을 만들고, 편리한 자동차가 도로 체증을 빚는다는 철학자 푸코의 분석처럼.

예전에 깊은 산속에서 열린 사찰 음악회를 취재하러 갔을 때다. 불교음악도 한국 전통음악의 한 갈래다. 신자들에게는 종교의 음악이지만, 종교와 무관한 이에게는 예부터 전송되는 전통음악이자 문화유산이다.

공연장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느껴지는 인공적인 세련미는 다소 떨어졌지만, 대신 적막한 산사와 자연을 채우는 불교음악은



인상적이었다. 소리가 반사되는 물질이 도시와 공연장을 채우는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을 이루는 산·꽃·나무일 때 그 소리는 우리의 감동에 더 진하게 남는 법이다. 그런데 나는 이 현장을 급히 담아 원고를 신속히 송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술에 관심이 많던 스님은 내 옆에 딱 붙어 설명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스님께 물었다. “스님, 혹시 와이파이가 되나요?”

평소 어딜 가든지 자주 묻는 말이다. 하지만 이곳은 산사가 아니던가! 스님의 눈빛은 “굳이 이 탈속의 공간에서?”라는 질문을 담고 있었고, 거기에 응수하는 나의 눈빛은 “그것이 있어야 저는 노트북을 타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변하는 듯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원고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유서를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적고 싶었다. “나 죽으면 와이파이존에 물어달라고.” 이게 모두 노트북 때문이었다.

본의 아니게 찍게 된, 한 편의 ‘전원-일기’

섬진강으로 취재하러 갔을 때였다. 섬진강은 판소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서편)에서

발전한 소리를 ‘서편제’, 동쪽을 중심으로 한 소리를 ‘동편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서편제’는 음악 전문 용어의 하나로 태어났지만, 1993년에 개봉한 영화 제목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이에게 잘 알려졌다.

섬진강 인근의 생가를 찾은 판소리 명인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다. 특히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을 보냈던 명인은 나의 이해를 돕고자 드라마 〈전원일기〉를 계속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 나갔다. 뒷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이야기를 듣던 중 이제는 노트북을 펼쳐 본격적인 이야기를 담아야 할 차례였다. 그런데 가방에서 꺼낸 노트북에는 전원 버튼이 빠져 있었고, 살펴보니 아주 뽕족한 것을 찢어 놓아야 할 것 같았다. 휴대하는 연필은 심이 너무 두꺼웠다. 일상에서 ‘뽕족한 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다.

노트북을 들고 헤매고 있으니, 명인은 자신도 잠시 쉬고 있을 테니 묘수를 찾으라고 했다. 집 앞으로 아주 작은 냇물이 흘렀는데, 잠시 발을 담근 명인은 어린 시절 생각이 났는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평소 무대에서 정통 판소리만 부르던 노장의 목이 잠시 샛길로 빠져들며 어디선가 들어본 트로트 가락을 흥얼거리는데, 판소리의 구성진 기법이 파놓은 길로 흐르는 트로트가 여간 맛있게 들리는 것이 아니던가! 동행한 이들도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호들갑이었다.

하지만 나는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대신해야 할 뽕족한 것을 찾아야 했다. 산속에 잔잔히 울리는 명인의 노랫소리와 함께, 자연과 전원田園을 벗 삼아, 나는 온갖 것을 다 넣어보았다. 이쑤시개처럼 가느다란 나무부터 심지어 민들레 줄기까지. ‘전원’ 버튼 구멍에 온갖 자연을 다 집어넣어본, 나만의 ‘전원-일기’를 그렇게 완성했다. 결국 이것도 노트북 때문이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DEAR READER

20년 전 종이 잡지로 태어나 한때 웹진으로의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매월 초 [문화+서울]은 아날로그 책으로 독자와 처음 만나고 며칠 뒤 온라인 [문화+서울]에 뒤따라 업로드되곤 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어느 출판만화 편집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름 교훈을 얻고자 읽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낱낱 웃고만 있네요. 아, 웃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이번 7월호 칼럼도 쿵쿵 대며 웃으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웃으실 일만 가득하길 겁니다.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UNDERLINE

“징후로서의 ‘미래의 기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속하지 않고, 쓰기-읽기의 현재에만 출현한다. 글쓰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촉각적인 사물들의 세계를 둘러싼 사유와 상상력에 속했다.” (이광호, 『장소의 연인들』, 2023) 좋아하는 저자의 글을 부러 느끼게 음미하는 것은 그사이 스스로의 생각을 보다 넓히고 싶은 욕심 때문일 겁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151 서울시민예술학교

2025 서울시민예술학교 여름 시즌

SEOUL MY SOUL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학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